

운길산 연습림 개발 등 수익사업 다각화

2009 주요업무보고, 재정확보 총력 ... 교육환경 개선에도 역점

우리대학이 2009학년도 새학기 를 맞아 산학협력관, 운길산 휴양림개발 등 올해의 주요목표를 설정하고 제도약을 위한 각종사업을 확정했다.

지난 달 2일부터 3일간 본교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학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보고회 자리는 각 단위 주체별 구성원들간의 2009학년도 주요사업 및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수익사업 모델 창출, 발전기금 200억 원 목표, 교육환경 개선, 고양 메디컬러스터 개발 등이다.

▲재정확보
경제 불황 속 등록금이 동결됨에 따라 대학은 재정확보를 2009년 가장 큰 목표로 잡았다. 사업확소

의 여파를 줄이고자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사업이 진행됐다. 사업개발실은 남양주시 운길산 연습림 부지에 교육, 연구 및 수익용 레저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제관 신축, 총무로 영상센터 개발 등에 투입되는 자본은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해 예산을 절약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대학원과 예술대학은 이해관계대학장을 활용, 학교기업 동국아트컴퍼니와 (주)IHQ와의 공동제작사업을 추진해 수익모델 창출 뿐 아니라 장학기금의 확충 또한 실현시킬 계획이다. 지난겨울 흥행을 기록한 '친정엄마와 2박 3일'은 이 같은 수익모델의 가능성을 열었다.

지난 해 102억 원을 모금해 당초 목표를 달성한 대외협력단은 올해

기금모금 목표액을 2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거액기부 유치를 중점으로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잠재기부자 발굴, 분야별 동문회 활성화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교육환경은 건물신축을 통한 연구, 학습 환경 마련과 고양메디컬러스터가 화두다. 산학협력관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3월 13일 기공식이 있을 예정이고 국제관은 7월말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환경 개선의 내용으로는 사업개발본부에서 준비 중인 5개 건물 옥상 정원 추가 조성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민원해결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운영지원본부에서는 학생서비스팀, 취업지원센터 등 학생관련 행정부서들을 분관

3층에 집중시켜 Student Zone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입학처에서는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108리더스, 다문화가정 자녀, 조기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전형 등을 신설하고 자기추천전형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언론기관 대학평가 종합순위 2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는 전략기획본부(본부장=이영민)는 고양메디컬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생명과학캠퍼스 확공과 수익 모델이 반영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 자리에서 오영교 총장은 "‘고객 만족’의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창출하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새 출발을 위한 합장 지난 26일 만해광장에서 200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개최됐다. 이날 신입생들은 입학식에 참석해 활장하며 새로 맞이하게 될 대학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산학협력관 · 기숙사 오는 13일 착공식 예정

243차 이사회, 국제관 건립도 승인 ... 이사장 선출은 13일로 연기

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영담스님)가 지난 달 21일 열린 제 243차 이사회에서 산학협력관과 국제관 신축을 승인했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됐던 이사장 선출 안건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다. 두 안건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 제 244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영배스님의 입장을 직접 듣고 거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영배스님을 제외

한 12명의 모든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사 정년스님(월정사 주지)은 "많은 이사가 해임안을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사장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2009학년도 예산은 지난해 보다 약 170억 원이 감액된 4889억 5315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사단법인 영석학원 기부에 관한 사항 등을 통과시켰다.

한편, 산학협력관은 3월 13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국제관의 경우 업체 선정 준비 과정 중에 있어 7월 경에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동국미디어센터장에 김용현 교수 임명



동국미디어센터 제2대 미디어센터장으로 김용현(북한학) 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김용현 센터장은 우리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6년 북한학과 조교수로 부임했다.

연초부터 발전기금 · 장학금 기부 잇따라

김영숙 씨, 각진스님 각각 3억원, 5천만원 기부

불자 김영숙(54) 씨와 각진스님이 장학금 조성과 불교 종립대학 발전을 위해 각각 3억원과 5천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지난달 2일 우리대학에 장학기금 3억원을 기부한 김영숙 씨는 평소 가장행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에 관심을 갖던 도중, 우리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기부취지를 밝혔다. 기부금은 우리대학 장학기금으로 적립돼 성적우수장학, 복지장학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각진(覺眞) 스님이 지난 11일 우리 대학에 발전기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

각진스님은 불교계 종립대학으로서 불교계 인재양성의 중심인 우리대학에 정재를 회사하는 것으로 회향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각진스님이 기부한 발전기금은 우리대학 국제관 건립기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동국문학, 새해벽두 신춘문예 8명 당선

동국 문학이 2009 신춘문예에 8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지난 1월 1일 일제히 발표된 신춘문예 발표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서희원 동문인 문학평론 분야에서 문화일보와 세계일보에서 잇따라 당선된 것을 비롯해서, 소설, 평론 등 문학 분야에 걸쳐 모두 8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문예창작학과에 재학중인 이주영 양은 재학생으로 조선일보 희곡부문에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 화제가 됐다. 신춘문예에서 단일대학이 8명이나 되는 당선자를 내는 일은 좀처럼 있기 힘든 경사라는 것이 문단 관계자들의 평이다.

▶관련기사 8면

불교학과 · 국문학과 2단계 BK21 중간평가 선정

각각 4년간 20억 · 18억 씩 지원 ... 신진 연구인력 양성과 학술연구기금으로 활용

불교학과와 국문학과(신규)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중간평가결과 신규 사업단에 선정됐다.

우선 불교학과의 경우 사업단으로 선정된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단장=김용표 · 불교학)'은 연세대의 비교평가에서 최종 선정돼 연간 5억 원씩 4년간 지원 받는다.

이번 중간평가는 지난 2006년 2단계 BK21사업에 선정된 '06년 선정 현행 사업단(팀)'과 '08년 신규

신청 사업단(팀)의 경쟁을 통해 현행 사업단(팀)의 계속 지원여부와 신규 신청 사업단(팀) 선정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원받은 사업부의 대부분은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지원, 신진 연구 인력 지원비 등으로 쓰일 계획이다.

국문학과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선정한 2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결과, 서울대 국문학과를 제치고 신규사업단이 됐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한국어 문학에서의 전승과 변역 연구인력 양성사업단(단장=

황종연 · 국어국문학)은 4년동안 18억을 지원받는다.

국문학과는 지원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대학원생들의 장학금등 신진 연구 인력 지원에 쓸 예정이다. 또한 국문학연구회의 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장 황종연 국문학과 교수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사업단 선정을 발판으로 우리대학 국문학과가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가능 새 학생증 빨리 신청하세요”

T-money · 체크카드 등 기능 추가, 4월부터 전면교체 사용



학생증이 2009학년도부터 T-money와 체크카드 기능 등이 추가

된 새로운 다가능 학생증으로 교체된다.

신학생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2주 후에 신한은행(퇴계로지점, 총무로지점, 동국대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우리학교 재학생, 편입생, 신입생 전체이다.

다가능 학생증에 추가된 기능으로는 교내 생협매장(식당, 서점, 매점 등)과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T-money, 체크카드 기능, 현금카드 및 전자통장 기능, 도서관 출입 · 좌석배정 기능이 있다. 또한 추후 전자출결시스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기존 학생증으로 도서관 이용과 학사운영 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므로 재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어설픈 허물을 벗고 동대신문사로 날아오르라

동대신문사가 치열하고픈 스무살을 51번째 수습기자로 초대합니다

모집대상 : 09학번 신입생
접수방법 : www.dgupress.com에서 온라인 접수
원서마감 : 3월 12일(목) 오후 5시
면접일시 : 3월 12일(목) 오후 6시
문의 : 위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02)2260-3491~2
혜택 : 소정의 장학금 및 활동비, 신문사 내 개인PC 제공



2010학년도부터 단과대학 등록금 자율화

경영분권화 확대 일환 ... 학교 측 "경쟁력강화 기여할 것"



우리대학이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2010학년도부터 단과대학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과대학 등록금 책정은 대학본부에서 각 단과대학의 등록금 수입, 지출예산 등을 고려해 기본적인

등록금 책정안을 제공하면 단과대학 측에서 이를 수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우리대학은 그동안 대학본부에 계열별로 등록금을 정해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해 왔다. 그러나 오영교 총장 부임 이후 단과대

학으로 경영분권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미 △강의로 선정 및 지급 △비전인교원 · 외래강사 · 연구원 인건 및 위촉 △교육과정 편성 및 조정 △장학금 지급 △연구비 책정 및 집행 등 인사권과 운영권은 단과대학에 부여한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총장을 그룹의 CEO, 단과대를 계열사로 보고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지는 취지"라며 "자율이 보장되지만 책임경영을 해야 하는 만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과대학 유국현 학장은 "단과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다"라며 제도 도입을 반겼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학내 모든 건물에 관리번호 부여

실내 명패 교체 예정 ... 체계적 호실관리시스템구축

우리학교 건물 전체에 관리번호가 새로 부여돼 각 건물의 공간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새로운 관리번호 부여로 각 건물 내부 층별 호실번호 표기 명패도 교체된다.

161,666 평방미터를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이번 건물 공간관리 계획으로, 영문으로 표기되던 각 건물명이 지역구분에 따른 3자리의 숫자 건물호수로 변환된다. 또한 강의실 호수도 체계적으로 정리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학림관 J210호 경우, 학림관 501-231호로 바뀐다. 변경 후 호수에서 501은 건물코드로, 231은 호실코드로 간주된다. 1학기에는 영문으로 표기되던 건물명과 새로 적용되는 건물코드 및 호실 코드를 상용하며, 2학기 때

는 전면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각 건물 호실 변경으로 바뀐 실내 명패 전체의 교체는 과학관을 제외하고 올해 하계 방학 중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은 각 건물의 코드이다. △학술관=101 △문과관=102 △사회과학관=201 △경영관=202 △해화관=207 △만해관=304 △명진관=307 △인홍관(1-3)=404, 405, 406 △정보문화관 P동=407 △정보문화관 Q동=408 △학림관=501

이밖에도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3월 중으로 중문과 후문의 캠퍼스 안내 지도에 건물의 영문명이 표기된다.

건물입구의 건물 표지판에는 영문을 비롯해 중문으로도 건물명이 표기될 계획이다.

김병식 전 부총장 초당대 총장 선임



우리대학 부총장(2005~2006)을 지낸 김병식(화공교수)가 초당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 김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4년간이다.

김병식 총장은 연세대학교 및 동대학원(화학 공학,공학박사)을 졸업하고 우리대학 공과대학 학장, 산업기술환경경대학원장, 부총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공학교육인 증원의 인증사업단장을 맡으며 대학의 공학교육혁신을 주도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총장 '진보장'을 수상한 바 있다.

회전무대

눈물의 소주 한 잔

○...요즘 경기가 어려워 눈물의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경기침체로 가정행권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휴학생이 전국적으로 40만 명이라고.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대학에 절주동아리를 만들겠다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절주 동아리 지원에 휴학생은 눈물의 소주한잔"

눈물의 졸업앨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비싼 졸업앨범을 선사합니다. 미리 돈 낸 사람은 6만 5천원, 나중에 사는 사람은 7만 5천원 언니의 비싼 졸업앨범비는 계속해서 우리 뒤를 따르렵니까(?).

행정대학원-산업기술보호협회 MOU 체결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상호 협력

행정대학원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0일 '산업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기술 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산업기술 유출 분쟁에 대응해 산업기술보호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보안분야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와 행정대학원은 산업보안 분야를 학문화하기 위한 각종 이론과 법제도 등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산업보안 관련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 등도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산업보안박람회 등을 비롯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산업보안 관련 중 · 단기 교육과정,

국내외 연구과정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산업기술보호협회가 추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내 산업보안 전공과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한민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산업보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근 행정대학원장은 "유망한 산업이라고 보아야 취약하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상호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육부 프로 10명 · 실업 2명 입단 성공

농구부 100% 프로진출 쾌거, GK 김진현은 J리그행



우리대학 체육부 소속 학생 12명이 프로팀 및 실업팀 입단에 성공했다. 이번엔 프로팀에 입단한 선수는 농구부 3명, 야구부 2명, 축구부 5명이며 실업팀에 입단한 선수는 축구부 소속 선수 2명이다.

농구부는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김중근(3순위), 김강선(8순위), 2라운드에서 최성근이 지명받으며 100% 프로구단 입단에 성공해 신홍 명문으로 부상했다는 평을 받았다.

축구부는 재학생 신분인 축구부

김진현(체고3 · GK) 선수는 올해 1월 일본 J2 세레소 오사카 프로팀에 입단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경호(MF), 이슬기(MF), 김선일(DF), 김중수(DF), 김성호(FW), 김성환(MF) 선수도 프로팀 및 실업팀에 입단했다.

야구부는 2008년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우승 주역인 김지수(유격수), 배영섭(야수) 선수가 각각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26일 판시

헌법재판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일명 '로스쿨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우리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대학을 비롯해 국민대, 조선대, 홍익대, 서울대 학생들이 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예비인가 배제결정'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각하했다. 우리대학의 경우 아직 자세한 판시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홍익대의 소송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6일 "총입학정원주의 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의평가 우수교수

전체교수회의서 시상

2009학년도 1학기 전체 교수회의가 지난달 25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더불어 Best Teaching Professor 시상과 15명의 신규교원 소개가 이뤄졌다.

Best Teaching Professor 계열별 수상자는 △인문사회=우제선(불교학) △자연공학=이성철(사회환경시스템공) △예체능=재대성(체육)이다.

단과대별 수상자는 △문과대=박석홍(중문) △이과대=송민규(반도체과학) △법과대=김선정 △사회과학대=김형용(사회학) △경영대=이상현 △생명과과학대=장원희(생명공학) △공과대=박강령(전자공학) △사범대=임식(체고) △영상미디어대=이현정(광고홍보) △예술대=이윤택(연극학부)이다.

하숙 다이어트?

○...동대 주변 하숙촌에는 신개념 다이어트가 유행한다는데 일요일에도 밥을 주던 하숙집들이 밥값을 못 올리니 식비라도 줄이겠다는데...

하숙집 주인 공동주최의 강제 다이어트 대회?

생각대로 하면 외고

○...K대 수시 불고 싶은 외고 가면 되고

일반고 학생들이 반발하면 모든 학교 똑같은 학생부 성적비율 반영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변명하면 되고

실질반영을 알려주지 않으면 되고

고급제 적용 안했다고 발뺌하면 되고

생각대로 외고만 뽑으면 되고

"우리는 닐야아 빛나는 수석(修席)"

계열별 수석 입학 박제관(경행1), 안동현(연극1)군



수석(首席)이란 등급이나 지위 따위에서 맨 윗자리를 의미한다. 대학이나 학교에서의 수석은 성적이 가장 우수한 이들을 일컫는다. 그러나 2009년 수석입학생 박제관(경행1)군과 안동현(연극1)군은 수석(首席)이라는 말보다는 닐야아 빛나는 자리란 의미의 '수석(修席)'이란 표현을 써주길 바랐다.

아직까지도 대학생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아 모든 게 알뜰떨떨하다는 두 사람. 수석 입학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학생들처럼 깔끔하고 자유로운 대학 교정이 설레기만 한 그들이다. "수능 점수로써 수석일 뿐이고 예술대 안에서의 성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안동현 군. 어릴 적부터 연극과 영화 쪽에서 일하길 꿈꾸며 우리대학에 가군은 연극, 나군은 영화영상에 지원했을 정도라고 한다.

박제관 군 역시 "검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서 자신을 쌓아나가고 싶어 택했어요"라며 지원동기를 소개한다. 두 사람 모두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진로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했었고 '공부' 자체가 싫었던 적도 많았다. 그럴 때면 꼭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해보고 싶은 일을 꼭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

는 생각으로 위로하곤 했다고.

안 군과 박 군은 어느 고등학교 생활처럼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어찌보면 공부를 일컫는 '들' 안에서 갑갑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제 '고등학생'이라는 벨트는 해제되고 '대학생'이라는 좀 더 자기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 "대학에 와 보니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걱정이 앞선다"라고 말하는 안동현 군. 이어 박제관 군은 "주어지는 자유가 많으니 열심히 해야겠다"라며 앞으로를 다짐한다.

입학식을 마친 후 정식 대학생이 되면 '심리학' 관련 강의를 꼭 들어보고 싶다는 박제관 군. "잡은 모르겠지만, 인간의 심리를 탐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며 무한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안동현 군은 "고 3때 방황하며 학교생활에 다소 소홀했던 점이 아쉽다며 후회 없도록 연극학과에 올인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훌륭한 입학성적에도 겸손해하며 자기위지에서 노력하겠다는 두 수석. 자기위지에 만족하지 않기에 두 사람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2009학년도 봄 학위 수여식 개최

박사 52명, 석사 523명, 학사 2,116명 배출

2009학년도 서울캠퍼스 봄 학위 수여식이 20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봄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52명, 일반대학원 석사 173명, 특수대학원 석사 350명, 학사 2,116명으로 총 2,691 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오영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국대학교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지하철역 개발 등 대학개혁과 강력한 혁신을 통해 민족사학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단 이사장 영배스님도 직무대행 영담스님이 대독한 졸업축사를 통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의 장도를 축하한다"며 "부

처님의 생명사상과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사회 곳곳에서 좋은 인재로서 모범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가수 이승기(국제통상4) 군과 배우 남성진(문화예술대학원) 씨 등이 총장 공로상을 수상해 눈길을 모았다.

성적우수상을 받은 각 단과대별 수석 졸업자는 △불교대=설정자(선학) △문과대=박미나(중문) △이과대=김혜림(생물) △법과대=신현옥(법) △사회과학대=홍승희(행정) △경영대=김학남(경영) △생명자원과학대=김정현(식품공학) △공과대=김종현(전기공학) △정보산업대=서정원(정보통신공학) △사범대=임미현(가정교육) △예술대=최지혜(연극전공)이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부 4천만원 지원받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여성부로부터 올해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여성부는 지난해 사업공모를 통해 우리대학을 비롯한 서울 경기권 4곳의 대학과 충남대 등 강원, 충청권 대학 3곳, 원광대 등 전라권 5곳의 대학 등 모두 20곳의 대학을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혜화문 에스컬레이터 완공 7월 말로 연기

2009학년도 1학기 개강일 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혜화문 에스컬레이터의 완공예정일이 7월말로 연기됐다.

중구청은 예전 시공업체가 중국산 저가제품을 사용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산 제품을 사용할 신규업체

로 선정하기 위해 연기됐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남산 르네상스 계획에 근거해 혜화문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해 설치 위치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악로에서



명암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우리대학이 지난 15일 2010학년도부터 단과대학에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과대학에 등록금 책정 자율권을 부여한 것은 국내 종합대학 중 우리대학이 처음이다.

이는 오영교 총장의 108프로젝트 중 '단과대학 중심의 학사경영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이미 우리대학은 각 단과대학에 총액 자율예산 배정제, 인사권 · 운영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이제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권한까지 단과대학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단과대학에 넘겨주는 것은 단위부서별로 경영을 전문화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단과대학 등록금 자율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가장 먼저 지적을 받는 것은 '단과대학이 예산기획과 등록금 책정이라는 업무를 담당할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다. 대학본부에서도 예산과 기획업무는 핵심 업무에 속한다. 학사행정 업무를 주로 처리

해온 학사운영실들이 단기간에 예산과 기획업무를 무난히 처리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또, 현재 대학원과 합쳐진 학사운영실을 제외하면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7명 정도다. 학사운영실에 등록금의 책정과 기획이라는 업무까지 배정된다면 소수에 직원들은 업무량 폭증을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에 한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의 직원은 "단과대학 등록금 자율화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단과대학 등록금 자율화는 단과대학별 자율 · 책임경영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과 정책이 무리없이 원래 의도한 바대로 운영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취지가 좋더라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과대학별 등록금 자율화도 앞서 지적한 전문성과 업무량 증가라는 예견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분권화 정책 성공의 잣대가 될 것이다.

교수 및 직원 보직 인사

우리대학이 지난 1월과 2월에 교수 및 직원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캠퍼스 교원보직인사

△영상대학원장 겸 영상미디어대학장=최순열(국어교육-학사부총장 겸직) △이과대학장=유국현(화학) △행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정장근(국제통상전공)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유창조(경영학) △공과대학장 =이의수(항공생물공학,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겸직)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이혜은(지구교육) △인문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김인재(경영정보학 전공) △교양교육원장=성관제(기계공학) △사회교육원장=임식(체육교육) △학사지원본부장=홍성조(산업시스템공학) △전략기획본부장=이영민(경영학 전공) △학생경력개발원장=이준서(경영

학 전공,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겸직) △중앙도서관장=신재호(전자공학 전공, IT학부책임교수 겸직) △동국미디어센터장=김용현(북한학 전공) △박물관장=최은천(미술사학) △불교대학원 부원장 겸 불교대학 부학장=김호성(인도철학) △이과대학 부학장=송민규(반도체과학)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성상현(경영학) △경영대학 부학장=이상철(경영학) △공과대학 부학장=김준태(컴퓨터공학) △교육대학원 부원장 겸 사범대학 부학장=한철호(역사교육) △학사지원본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상현(경영학)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교육부장=권보드래(교양교육원) △공학교육혁신센터장=안종석(컴퓨터공학) △문화학술원장=조종홍(영화영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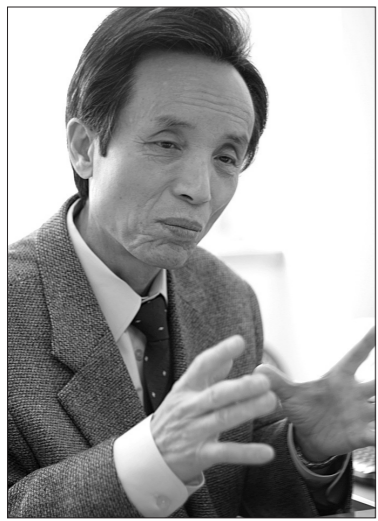
▶ 서울캠퍼스 직원인사

△운영지원본부장=김계현(법인

사무처 총무부장 및 전산원장 겸직) △체육실장=백경선 △대의협력단 =신관호 △산학협력단 R&D사업팀장=주성태 △정보관리실 정보운영팀장=김중기 △대의협력단 대외지원팀장=이권하 △경영전문대학원, 경영대학 학사운영실장=정경훈 △국제화추진단 국제교류팀장=신하균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장=최기석 △대의협력단 대외기획팀장=김진한 △동국미디어센터 대학미디어팀장=김재선 △불교대학원 불교대학 학사운영실장=박광호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장=이성진 △입학처 입학기획팀장=한문우 △입학처 입학관리팀장=김성근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장=김영진 △불교대학원 불교대학 학사운영실=이경식 △행정대학원 사회과학대학 학사운영실=손재영 △언론정보대학원 국제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박정훈

2009학년도 1학기 퇴임교수 인터뷰

“경제와 불교 연결고리 계속 탐구할 것”



박 광 식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경제학과 교수

65년 전,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공부하기에도 어려웠던 한 소년이 풍요로운 사회를 꿈꾸며 '경제'를 좋아하게 됐다. '넉넉해지고 싶은 소박한 마음에 경제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느덧 30년 고지생활을 마친 '퇴임교수'라는 훈장을 달게 됐다. 이제 곧 퇴임이라는 설사한 마음보다도 경제 관련 연구업적이 부족해 아쉽다는 박광식(경제학과)교수. 그가 말하는 '경제'에 대해 들어봤다.

'불철주야' 박 교수가 유학생활을 하던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나타

내주는 한자성어다. "부족한 살림 속에서 시작한 공부였기에 밤, 낮으로 공부밖에는 몰랐지"라고 말하는 박광식 교수. 홀로 떠난 유학길이었기에 그에게 5년이란 시간은 길고도 길었다.

유학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묻자, "우리 세대 때는 결혼 상대가 아니면 연애도 못했다고, 5년간 독수공방을 하며 지내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지"라며 웃는다. 쓸쓸함을 아는 까닭에 유학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당부하는 메시지는 '될 수 있다면 파트너를 만들어 함께 가라'라고 한다. 외로움을 알기에 하는 충고라고 한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를 공부하며 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다. 학생들에게는 유독 학점 잘 안 주는 교수로 유명했던 까닭도 치열했던 삶이 가져다 준 교육철학이었다. "절대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A, B가 있으면 반드시 C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학생들이 반발하는 문제였지만 자신의 평가 기준이 왜곡되게 될 수는 없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원리,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생활의 일면을 깨닫게 해 주고 싶었다고 한다. 대학은 "세상에 뛰어내기 위한 발돋움을 하는 공간이다"라며 사제 간의 엄격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을 뒤늦

게 토로한다. 뒤이어 그는 "그래도 결국은 학생들에게 많이 졌지"라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박광식 교수는 30년 간 함께한 '경제'를 정리하며 새삼 깨닫는 경제의 모습이 너무도 많다고 한다. 젊은 시절 그에게 경제는 물질적 부가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한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물론 경제, 나아가 인생에서 물질적 부라는 것이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진정한 경제에 대해 말했다. "불교종립대학인 우리대학에서 '검소'의 미덕은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며 "마음속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건강 경제학"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교와 경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때문에 박 교수는 퇴임 후 불교와 경제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위해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즘처럼 경제도, 사회도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박광식 교수의 경제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검소함을 미덕으로 마음과 몸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이다.

김철만 기자
lan@dongguk.edu

“나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거미학자”



김 주 율
생명과학대 바이오학부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실 속 수많은 곤충의 스티커. 교수의 연구실 이미지와는 맞지 않지만 30년간의 교수생활을 하며 곤충학, 특히 거미학을 연구한 김주필 교수의 연구실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20만 마리의 거미를 수집해온 김주필 교수.

이제 그는 퇴임이란 종착점에 도착했다. 퇴임을 앞둔 김주필 교수는 "막상 퇴임이 다가오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직 마음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퇴임 소감을 말했다. 30년간의 교수생활

을 함께한 정든 연구실을 떠나기 싫은 눈치였다.

김 교수는 학생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제시를 교육 철학으로 여긴다. 그래서 제자들의 성공이 그에게 교수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보람이다.

그가 뽑은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 유종선 박사다. 현재 30대란 적은 나이에 환경부 연구원이다. 또한 김주필 교수 퇴임식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김주필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한다. 제자들의 성공을 위해 조연을 아끼지 않는 그는 제자들이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바로 잡아 주지 못한 점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남산에 올라가 나무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 남산에 올라갔으면 나무, 주변 경치, 즐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루 봐야지. 그러니까 대기업 보단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해" 김주필 교수가 인생 선배로서 제자들에게 해준 조언이다.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보단 중소기업에 취직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는 것이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것이다.

그는 "한창 때는 제자들과 진로를 두고 밤을 새며 상담을 하기도,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다"며 "하지

만 돌이켜보면 조용하지만 성실했던 학생들을 신경써주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며 제자들에 대한 소회를 드러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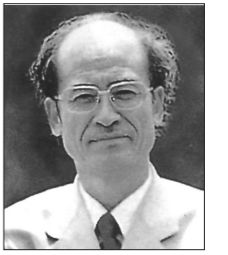
이젠 강단을 떠나야 하는 김주필 교수의 마지막 바람은 제자들에게 소신과 가치관이 뚜렷하고 의리를 중요시하는 교수로 남는 것이다.

우리대학 법인사무처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재단이나 종단이 주장한 만큼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사학이란 건학 이념에 맞게 종단과 재단에서 좀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현재 우리대학의 명문학과라 불리는 인문사회과학 계열 분야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및 연구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 및 연구 분야의 성장 없이 성공이 없다"며 우리대학 자연과학 및 연구 분야의 부진에 대해 한탄하기도 했다.

강단을 떠나야 하는 그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멋진 거미학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 꿈을 위해 한국거미연구소와 아라크노피디아 및 자연생태수목원을 설립하여 거미학 연구에 헌신하고 있다. 이젠 동국대 교수가 아닌 멋진 거미학자 김주필로 남을 그의 마지막 꿈에 기대를 걸어본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양문흠(철학) 교수, 이기동(사학) 교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뷰를 하지못해 간단한 약력을 소개합니다.



양 문 흠
문과대 철학과 교수
세부전공 서양철학
학위
서강대 철학 졸
서울대 철학 석사
서울대 철학 박사



이 기 동
문과대 사학과 교수
세부전공 한국고대사
학위
서울대 사학 졸
서울대 사학 석사

2009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소개

생명과학연구원 의과학연구소 김성민 부교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필을 실지 못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영어영문학부 행정학전공 경영전문대학원 의생명공학전공 화공생물공학과 연극학부 광고홍보학과



박 광 식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 조교수

제가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성장하였던 동안에 이제 가르침과 배움의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되어 마음이 한없이 설레고 벅차오릅니다. 언어학의 한 분야인 통사론은 영어의 문장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국제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영어 학습에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 요즘, 영어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구문 구조의 연구를 통해 우리 동국인들이 보다 깊이 있고 효율적으로 영어를 습득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 출신 동문인만큼 학생들의 교육에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갖겠습니다.

△영어통사론 전공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사 · 석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박사 △시립인천전문대학 조교수



주 창 범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조교수

술한 민족지성을 배출한 민족동국대 구성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 선배 지성들의 지적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적인 지혜와 외적인 자비를 충만케하라는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새삼스럽게 새겨서 동국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공부에 힘쓰고 주위에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행정학과는 바로 이러한 예비 국가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곳이니 만큼 동국대다운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대 구성원 여러분들, 저 뿐만 아니라 행정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행정학 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사 · 석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학 박사 △KBS PD, MBC PD



이 재 남
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국제재무분석사(CFA) MBA 과정은 일반기업의 재무, 기획전담과 증권, 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설된 교육과정의 주인공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동국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과정은 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깨우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늘 열려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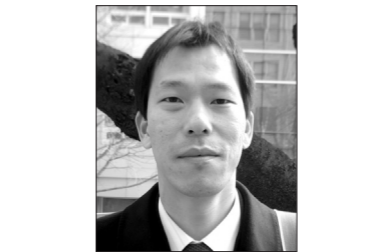
△공인재무분석사 과정 전공 △경희대학교 경영학 △Ball Stats Univ MBA △Univ of Cincinnati 재무관리 △한국증권연구원 소 대표이사



권 영 은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전공 조교수

평화로운 교정에서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마주할 생각이 벌써부터 얼굴에 행복함 미소가 지어집니다. 낮은 학문 분야에 섰듯 발을 내딛는 모험심 가득한 의생명공학도를 그리고 생명과학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밀접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다양한 생명공학자 기법들을 바탕으로 바이오엔지니어링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생명현상에 관한 근원적인 이해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의학과 약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생명 나노바이오/중개연구 전공 △고려대학교 화학 학사 · 석사 △The University of Chicago 화학 박사 △삼성중합 기술원 전문연구원



강 택 진
이과대학 화공생물공학과 조교수

학위 후 미국과 일본에서 연구 생활을 하다,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구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전문 지식들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짐을 절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전공한 무세포 단백질 생산에서의 최첨단 단백질 생산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성 단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에 일조함을 물론이요, 화과 아니 학교 다른 선생님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생물화학공학 전공 △서울대학교 공업 화학 학사 · 석사 · 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특임교수



정 달 연
예술대학 연극학부 전임강사

졸업한 모교에서 후배이기도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제가 입학할 때와는 다르게 연극과 영화가 나뉘어있어, 요즘 뮤지컬을 중심으로 공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민간 차원에서 공연장 건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완성도 높은 국내 창작물 개발과 우수한 해외 공연물을 국내에 소개할 공연기획자 제작자, 프로듀서의 육성과 더불어 공연장을 운영할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연기획과 극장경영의 실무 경험과 예술경영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연예술경영 전공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 △New York University Music and Performing Arts Professions △삼성엔터테인먼트 이사



윤 성 훈
영상미디어대학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오랜 미국생활을 마치고 새봄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의 명문인 동국대에 등지를 틀게 돼 기쁘고 마음이 설렙니다.

이십여년전 학생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한국 대학생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홍보학을 보다 수준 높은 학문으로 끌어올리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 홍보인을 우리나라에서 물론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홍보전문가로 교육하고 싶습니다. 홍보학 분야중 특히 국제홍보 및 국가해외홍보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광고학계 뛰어난 인재양성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분야 전공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Univ. of Maryland 커뮤니케이션 석사 · 박사 △Kansas State Univ. 조교수



이 상 빈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 전임강사

영어 · 통번역학과는 국제적 안목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21세기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통번역 능력과 함께 타문화와의 교류에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학습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겠지만 각종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행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는 일이 제게 주어진 소명의식이라 생각하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께 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영어통번역학 전공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 △서울외국어대학교대학원 한영통번역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영통번역 박사 △서울외국어대학교대학원 연구원



조 광 회
경영대학 회계학전공 조교수

오랜 전통을 지닌 사회의 명문 동국대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국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제가 담당할 회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해 기업과 관련된 약속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학도들을 포함하여 저와 함께 회계라는 영역에서 같이 고민해 보고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회계학 교수라기보다는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김 성 민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전공 부교수

'의용공학'은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가기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문으로, 의학과 전자공학의 경계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전자파, 초음파,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질환을 진단 · 치료하기도 하며, 생체 신호(심전도, 뇌전도 등)를 측정하며 의학과 공학이 접목되어 의생명과학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론(methodology)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사학인 동국대에서 다양한 학문영역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동국대의 학생들과 새로운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열에 동참하여, 앞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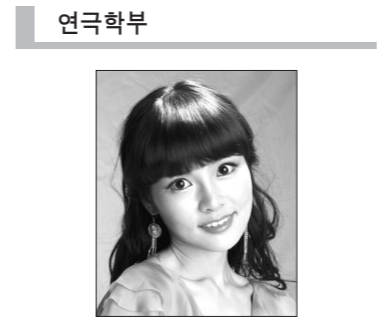
△의공학 의료가기 전공 △연세대학교 전지공학 △카이오대학교 의공학 석사 · 박사 △건국대학교 의공학부 부교수



박 은 칸
공과대학 IT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조교수

저는 동국대학교를 100년 전통의 명문 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유능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점 매우 기쁘게 여깁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무선 통신망에 관한 것으로 최근 무선 인터넷 접속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무선 선랜, WiBro, 이동전화 통신망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 보급되고 무선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말과 응용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세대 무선 통신/네트워크 분야를 이끌어 나갈 열정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연구하며 비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신호처리시스템/블루칩신호처리/무선MAC 전공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 박사 △삼성전자 정보통신개발 책임연구원



이 은 혜
예술대학 연극학부 전임강사

1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동국대학교, 그리고 수많은 훌륭한 배우들을 배출한 연극학부에서 뮤지컬 관련 강의를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뉴욕에서 뮤지컬 학위를 받았으며, 뮤지컬 배우로서는 미국에서 '미스사이공', '왕과나' 등 그 외에 한국 '갯조'에서 얼마까지 공연을 하였습니다. 뮤지컬은 연기, 노래, 춤, 삼박자가 함께 잘 어울려야 멋진 공연이 만들어집니다. 뮤지컬의 곡의 분석, 호흡과 발성, 레퍼토리 수업 등 학교 교육과 동대 연극학부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뮤지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오. 동대인 모두 환영 합니다!

△뮤지컬실기 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음악학 △New York University Music and Performing arts professions △한세대학교 겸임교수



박 성 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전임강사

유럽의 한 위대한 지성이 탄식했듯이 문학은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출세하지도, 큰 돈을 벌지도 못합니다. 그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뉴욕에서 뮤지컬 학위를 받았으며, 뮤지컬 배우로서는 미국에서 '미스사이공', '왕과나' 등 그 외에 한국 '갯조'에서 얼마까지 공연을 하였습니다. 뮤지컬은 연기, 노래, 춤, 삼박자가 함께 잘 어울려야 멋진 공연이 만들어집니다. 뮤지컬의 곡의 분석, 호흡과 발성, 레퍼토리 수업 등 학교 교육과 동대 연극학부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뮤지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오. 동대인 모두 환영 합니다!

△소설창작 실기 전공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예술 석사 △소설가



조 기 룡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

동국대학교는 불교학을 태동으로 다양한 학문을 통섭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동국대에서 불교학자로서 길을 걷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인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풍요의 내면에는 인간소외, 사회갈등, 그리고 생명경시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향후 저는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사회에 응용하고 실천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백년 역사의 동국 불교학이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가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천 및 응용불교 전공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사 △동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 박사 △불교문화학원 전임연구원

‘정의’에 기반하지 않는 ‘법치’는 무의미

강한 자만을 위한 ‘법질서’ 밀어붙이기는 시민 저항 불러일으킬 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경제살리기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사회복지의 축소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들 뿐이었다. 또,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한국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과거 군사정권이 애용했던 공안통치로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이번 기획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초래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을 법, 경제, 사회, 언론 등 네가지 분야로 나누어 다룬다. 편집자

글 쓰는 순서

1. 법치주의의 허구성 :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2. 경제 정책 : 가진 자를 위한, 가진 자의 'MB 노믹스'
3. 사회·복지 정책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몰이해
4. 언론 정책 : 재갈뭇린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난 해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어른이든 가장 많이 부른 노래의 이 제목은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헌법의 제1조 제1항이다.

‘폐법 청산! 엄격한 법치주의 확립!’ 이것은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구속,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조중동 같은 언론이 가장 열심히 외치고 있는 구호이다. 법무부는 연간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제1의 업무로 잡았고, 로고송까지 만들어 준법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겉으로만 보자면 이 둘 사이의 간극은 그리 크지 않다. 법치주의는 민주공화국을 구현하는 원리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이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나 다른 무엇으로 운영될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어느 누군가가 촛불들의 노래 앞에 ‘누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아니냐?’라거나 정부의 캠페인을 듣고 있다. ‘누가 법 지키지 말제?’라고 되물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두 개념의 의미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통제돼야 할 것은 ‘권력’

공화국(republic)은 주권이 군주나 세습 귀족 등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시민들에게 있고, 직간접으로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하여 행사되는 정체(政體)를 말하고, 주권이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으로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 세력이 골자 그대로 공화(共和), 즉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를 의미

한다. 따라서 공화국은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한편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한이 특정 개인이나 세력의 독단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이를 통해 법의 규율을 받을 자에게 법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절대군주제의 전횡을 제한하려는 시민들의 저항에서 탄생한 것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조직이나 기능이 견제와 균형, 국민대표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율될 것을 요구한다.

곧, 법치주의는 ‘법을 지키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제 멋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로, 국민이 아니라 그 반대대로 권력자를 통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처럼 법치주의의 구속을 받을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의 확립을 부르짖고 있어 놀랄 일이지만, 그 속살맹이를 알고 보면 놀랄 일이 아니라 분노할 일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엄격한 적법절차의 통제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주권자이자 기본권의 담지자인 국민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또 약한 자, 없는 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강한 자, 있는 자를 위한 법을 강요함으로써 공화국의 정체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 모습 사진=김윤수 기자

법치는 표현자유 전제돼야

공화국은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세력이 공존하므로, 이들은 자신의 입장이 관철된 법규범을 만들어 전체에게 통용시키고자, 곧 정치적 다수자가 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공화국의 법은 당대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절충되고 조절된 규범으로서 여러 집단의 당시 역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어떤 세력이 성장하여 다수자가 되면 이들의 입장이 반영된 법이 전체의 규범으로 공포되고 집행되지만, 그 세력이 쇠락하면 반대세력이 다수자가 되어 새로운 다수의 입김이 투영된 법으로 개정된다. 곧 공화국의 법은 여러 집단의 성장과 쇠락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통념처럼 영원불멸하지도, 순수하지도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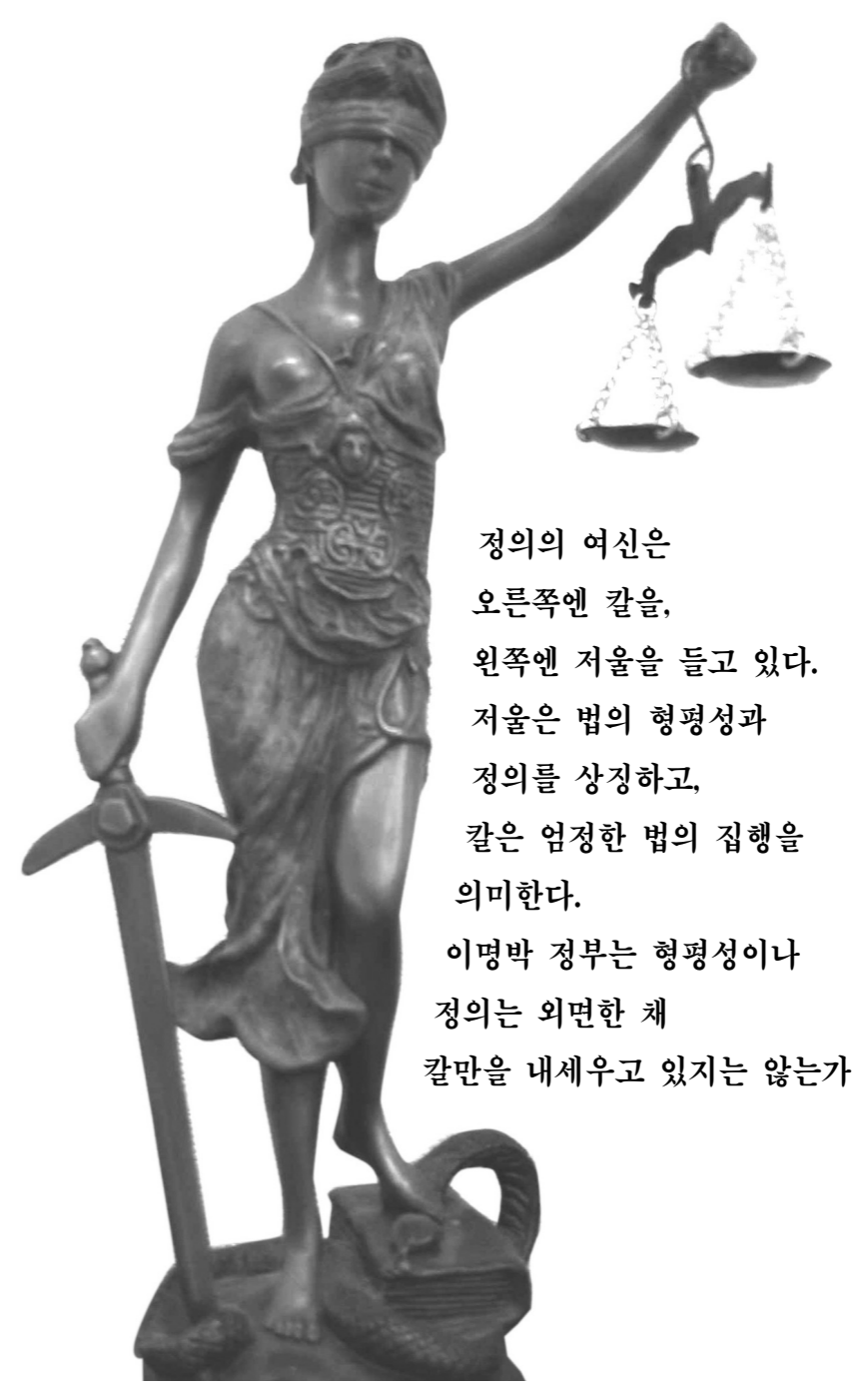
하지만, 공화국의 법이 ‘공화국’의 법으로 유지되려면 두 가지 조건의 충족은 논리필연적이다. 그 하나는 공존이다. 이는 정치적 다수자가 소수자를 절멸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압도적 지배력,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집단이 사실상 모든 자원과 부, 지위와 권한을 차지하는 양극화사회라면, 어떻게 조화와 공존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헌법 전문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가 모든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명하고 있는 것도 공존을 전제로 하는 공화국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공화국의 법이 ‘공화’를 위한 또 다른 조건은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어느 한 집단이 다수자 지위를 영구화하지 못하도록, 소수자가

언젠가는 다수자가 될 수 있도록 절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경쟁을 정치적 다수자가 되기 위해 다른 세력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여론형성이라 일컫는데,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수단상의 접근가능성 같은 실질적인 여건의 구비는 소수자가 장래의 다수자가 되기 위한 초석이다. 우리 헌법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며 그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부르는 것도 누구든지 장래의 다수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토머스 에머슨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는 민주사회의 근본원칙으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집회의 자유는 ‘없는 자’에게 최후의 보루’라 했던 것도 같은 연유다.

강자 편 기운 ‘법치주의’

그런데, 현 정부는 출범 후 1년 동안 부자들을 위한 각종 감세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스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을 거론하며 부동산부자들을 비호하였는가 하면, 수돗물과 의료의 민영화화를 통해 돈 없으면 물도, 의료도 공급받지 못하게 하고,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국민의 예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이용할 길을 터주며, 최저임금을 더욱 낮추고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하고자 이른바 MB악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더욱더 강자의 편으로 기울어져 공화국의 법이라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용산참사는 재개발이익의 탐욕에 눈먼 건설자본과 이에 결탁한 정치인들의 협잡이 빚어낸 균형추를 잃은



정의의 여신은 오른쪽엔 칼을, 왼쪽엔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법의 형평성과 정의를 상징하고, 칼은 엄정한 법의 집행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형평성이나 정의는 외면한 채 칼만들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사회 비극의 한 단면일 뿐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법이 사회가 정치적 소수자가 다시 다수자가 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여건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부는 발상에만 목매달고 있으니, 공화의 기본수단마저 목 조르고 있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싶은 이발사의 입을 막으려는 전제군주제에서나 있을 법한 비웃을거리다.

그런데, 법무부에 제출된 산업정책연구원의 ‘66개국 법질서 경쟁력’ 조사결과는 정치인과 기업, 정부보다 시민 부문이 월등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불거진 여러 사회질서 문제들의 원인이 시민의식보다는 정부나 정치인, 기업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밝혀낸 것’이라 적혀 있다. 가관인 것은 그 연구결과에 당혹한 법무부가 내용을 보완하라면서 보

고서를 반려하였다는 점이다.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폐법’이나 ‘불법시위’ 등을 지목해 온 정부가 기대와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이를 감추기 위해 반려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했던 가.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준법질서 캠페인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하고 법을 위반한 국민을 엄벌한다고 해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지는 않는다. 국가 스스로, 정부 스스로 자유·평등·정의라는 공화국의 이념에 맞게 다양한 이해와 가치, 견해를 조정하고 조절하며, 법 집행의 근본 목적을 고려할 때, 비로소 ‘법치’를 거론할 수 있고,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만원을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

만원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영화 한편, 테이크아웃 커피2잔, 음악CD 1장. 그러나 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습니다. 힘든 학우의 등록금이 되기도 하고, 오래된 학교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만원이 많은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 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만원의 행복이란? : 1구좌당 1만원의 금액으로 동국대학교에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구좌수에 관계없이 추가하실 수 있으며, 최소 1만원씩 참여 시, 연간 12만원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우편, 전화 및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2260-3300, 3794~5, 8992~3)

*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ilove.dongguk.edu/>)에서 2009년 3월 10일부터 참여가능합니다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

동문 찾기 캠페인

“내 마음의 고향 -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에서는 학교와 동문간의 협력과 동문 상호간 유대 강화를 위해 ‘동문 찾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현재 본교 학부와 대학원 출신 동문님의 연락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처 파악되지 못한 동문님의 데이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문 찾기 캠페인”을 통해 부족한 데이터를 충실히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모교와 소식이 닿지 않는 동문님을 알고 계신다면 “동문 찾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문 찾기 캠페인

- 기 간 : 2009. 3. 6 ~ 3. 31
- 참여자격 : 동국가족 (교수, 직원, 재학생, 동문 등)
- 참여방법 :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ilove.dongguk.edu>) 접속을 통해 캠페인 응모
- 시 상 : 동문 다수 추천자 시상
 - 최우수 : 최대 추천자 1명 (60만원)
 - 우 수 : 2위~6위 5명 (30만원)
 - 장 려 : 7위~16위 10명 (10만원)
- 결과발표 : 2009년 4월말

* 현재 학교소식지를 받는 동문께서도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02)2260-3300, 3793~5, FAX: (02)2260-3796
<http://ilove.dongguk.edu>

외국어교육센터 강좌 안내

1. 등록 및 문의

- 원어인 강좌
 - 가. 개설기간 > 3월 강좌 : 3월 9일~3월 27일(주 4일 3주간)
 - > 4월 강좌 : 4월 6일~4월 24일(주 4일 3주간)
 - > 5월 강좌 : 5월 4일~5월 22일(주 4일 3주간)
 - > 6월 강좌 : 6월 8일~6월 26일(주 4일 3주간)
- 나. 수강료: 90,000원
- 다. 접수 후 계좌이체 : 신한은행 140-007-481766 동국대학교

● ETS(English Study Tutoring) 제도 신설

가. ETS(English Study Tutoring)이란?
7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반개설을 요청하면 원어인 강사를 섭외하여 특강을 개설해 드립니다.

나. 수강료 90,000원

단, 더 적은 수로 강의개설을 요청시 수강료 조절이 있습니다.

다. 수시 개설 가능

라. 영어 외에 일본어, 불어, 중국어도 가능

- 장학 토익 특별 과정
 - 가. 개설기간 > 토익기초종합 : 2009.03.23~05.22
 - > 토익 실전 : 2009.03.24~05.21
 - * 중간고사 1주 휴강
- 나. 각 반 선착순 100명 모집(총 200명)
- 다. 수강료 : 30,000원(80%이상 출석시 전액 환불)
- 라. 특전 : 동영상강의 무료제공, 교재 15% 할인(구내서점)

● 접수 방법 및 기간

가. 원어인 특강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접수 (해학관 1층 외국어교육센터)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강좌개시일까지

나. 장학토익 특별과정 > 접수방법 및 기간 : YBM에서 전달하여 접수(접수장소 : 추후 공지)

- 문의전화 : 2260-3468, 3470, 3474
- 강의실 : 추후 공고

2. 원어인 강좌 시간표

시간	매주 월/화/목/금 3주간	월/수 3주
8:00~9:00	회화중급 회화상급 Discussion & Interview Skill	Writing
9:00~10:00	Discussion & Interview Skill	
13:00~14:00	회화초급	Writing
18:00~19:00	회화중급 회화상급 Discussion & Interview Skill	
19:00~20:00	회화중급 회화상급 Discussion & Interview Skill	

* 6명 미만시 폐강, 개강일 전에 모두 입금 완료하여야 함.

3. 장학 토익 특별 과정

구분	시간	강사	교재
토익 기초종합	월/수/금 7:30~8:30	홍소영	영시강 토익 베이직 LC/RC
토익 실전	화/목 7:30~8:50	홍소영	토익공식 실전 LC/RC

교양수학 튜터링 안내

수학과에서는 교양수학의 효율적인 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튜터링을 운영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기간 : 2008.03.09 ~ 06.19
2. 일시 : 월 -금, 오후 2-5시
3. 장소 : 과학관 109호 교양수학/개인교습실
4. 문의 : 수학과사무실 (02-2260-8712)

수 학 과

2009학년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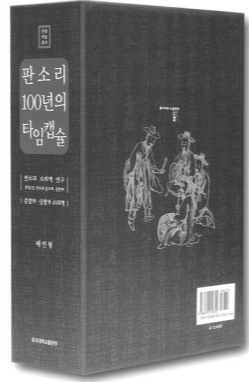
1. 신고 기간 : 2009년 2월23일(월) ⇒ 3월13일(금) (3주간)
2. 신고 대상
 - 가.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증 예비군 신분의 학생
 - 나. 2009년도에 편입생, 입학생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 대학원의 연구, 관리자 과정 / 복학과 동시 휴학자는 신고제외
 - * 2009년도에 전역한 학생은 2010년도에 전입신고
3. 신고 장소 : 예비군 연대본부 사무실 (본관 2층)
4. 신고 시 지참물
 - 가. 전역증 (군번, 주특기, 입영일, 전역일 등 신고서 작성 시 필요)
 - 나. 등록금 납입 영수증 (미등록자는 대학 예비군에 편성불가)
 - * 등록금 납입 영수증 분실자는 전입신고 시 확인가능
 - * 등록금 분할납부/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연대본부에서 확인서 작성 후 전입신고 가능함
6. 기타 상세 문의 : 예비군 연대본부 (☎2260-3047~8)
- * 휴학기간 중 2008년도 지역에서 부과된 훈련미필자는 신고시에 필히 훈련결과를 실무자에게 통보바람.
- * 대학 직장 예비군에 편성하여 면학분위기에 기여함을 물론 법적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

‘판소리 100년의 타임캡슐’ 펴낸 배연형 동문

판소리 원류는 전라도 아닌 경기 충청

판소리 가사집 ‘소리책’ 분석 논문서 제기 ‘학계 주목’



판소리 소리책 연구 외 부록 세트
지은이 : 배연형
펴낸곳 : 동국대학교출판부

흔히들 판소리가 전라도 지방에서 경기 충청 지방으로 올라왔다고 알고 있다. 학계에서도 판소리 관련 논문 중 90% 이상이 판소리가 전라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인정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소리계의 통설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이가 있어 화제다. 우리 대학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대학의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단의 연구 책임자로 있는 배연형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배연형 씨는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판소리 관련 유성기 음반을 수집해 왔으며 지금은 보유한 가치 있는 음반 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을 정도로 그 열정이 뛰어나다. 그는 석사 과정 때 석사 논문을 준비하던 중 머리를 식히려고 방문한 국립극장에서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졌다. 판소리가 마냥 재밌었다는 그는 그 때부

터 판소리 관련 유성기 음반을 학문적인 접근으로 수집했다. 학자 입장이 아닌 독학으로 판소리를 듣고 체득한 배연형씨는 오히려 경험 중심의 학습을 바탕으로 학문을 기존의 선입관 없이 자신의 판단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유연함은 그가 낸 책 ‘판소리 소리책 연구’에서도 여지없이 녹아들어 있다. 이번에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판소리 소리책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써 판소리 가사를 기록한 소리책의 가치를 재조명한 연구서다. 소리책은 판소리를 하는 명창들이 자신의 노래를 잊지 않도록 적어 놓는 판소리 가사 집을 뜻하는데 판소리의 가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명창들이 쓰던 장단도 들어있다. 판소리관련 유성기 음반은 1900년에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유성기 음반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그 이전인 19세기 때의 판소리의 원형은 기존의 자료와 문서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판소리의 원형을 짐작하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로 배연형씨는 소리책을 꼽는다. “판소리는 성음(발성법), 장단의 운용, 선율의 짜임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단과 가사만으로 판소리를 파악할 순 없다. 하지만 그 판소리의 유파적 특징이나 바다 전체의 짜임과 같은 좀 더 큰 단위의 판소리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소리책의 가치를 재조명 해낸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소리책과 유성기 음반을 토대로 배연형씨는 기존의 판소리의 전라도 기원설을 반박하며 판소리 전라도 지역에서 기원한 것이 아닌 충청도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 근거로 그는 현재 전라도 지역에서 발전한 동편제와 서편제에서 가끔

가다 서울의 판소리 말투인 경(경)투이 뛰어나온다는 것에 주목한다. 과거 경기 충청 지역의 판소리였던 중고제의 소리를 대대로 전수받아온 이동백 명창의 소리가 담긴 유성기 음반과 같이 경기 충청 지역의 옛날 판소리의 흔적이 현대 판소리에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배치는 명창들의 판소리를 모은 ‘조선창극사’에서 판소리의 초창기인 전기 팔 명창의 활동 지역과 출신 고향이 모두 경기 충청이라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주요 활동 지역이 다른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판소리 초창기의 팔 명창 모두 경기 충청 지역이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판소리의 문학적 콘텐츠와 출판의 역사도 서울에서 전라도로 내려가는 루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배씨 주장의 근거다. 이 밖에도 오랜 유성기음반 수집과 연구의 기초 위에 있는 근거가 많다. 이러한 주장들은 저자의 오랜 유성기음반 수집과 연구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어서 만만하게 흔들어 버릴 수 없다. 반박을 위해서 반대 한 회귀자료를 섭렵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 박사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집념 날릴 것이 아니라 때론 강하게 건전한 논쟁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서로 이기기 위해 열심히 파고들어 학문이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며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책 부록에 자신이 근거로 세운 중고제의 유성기 음반을 집어넣은 것도 “상대방에게 내 주장의 근거를 공개해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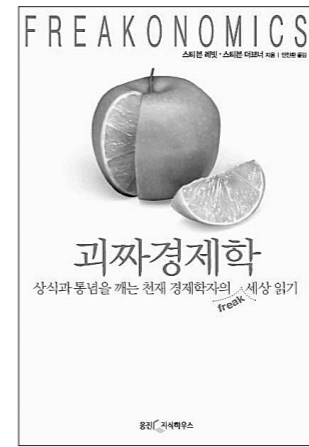
<1> 괴짜 경제학

이관수 교수의

상식을 뒤집는 책임기



이번주부터 이관수 교수와 권보드레 교수의 서평 연재를 이어간다. 이관수 교수는 상식 속 이상적 오류를 꼬집는 ‘상식을 뒤집는 책임기’를 권보드레 교수는 어려운 속 희망을 강조한 ‘시련을 극복하는 책임기’를 각각 번갈아가며 연재한다. 편집자



괴짜 경제학

지은이 : 스티브 레빗, 안진환 역
펴낸곳 : 웅진지식하우스

이 책은 경제학 책이 아니다. 경제학을 재테크로 이해할 때는 물론, 재화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게다가 세상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다루는 소재들도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서로 관련도 없다. 스모선수들이 승부조작을 하는 흔적이 있는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름들이 어떻게 바뀌는 패턴은 어떠한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

사소하면 다행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총보다 수염이 더 위험하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애쓰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별로 영향이 없든지 등등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편해질 이야기를 스텝없이 끼워 넣는다. 그래 놓고서는 책의 말미에서는 뻔뻔스럽게도 ‘하나로 통합된 중심주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악서의 지표는 고루 갖췄다. 그럼에도 이 책은 좋은 책이다. 책에 담긴 사례들을 통합하는 주제는 없지만, 저자들은 사람들이란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마련이라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레빗에 따르면 경제학은 “근본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

자료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관관계를 더욱 깊이 파헤치면 그곳에서 감춰진 사실 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변이들을 연구한 찰스 다윈의 후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들 뿐이었다면 고전적인 관점을 잡다한 사례들로 풀어낸 읽을거리 수준을 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책이 좋은 진짜 이유는 통계를 통해 사회통념을 넘어서 더 나은 ‘사실’을 찾아가는 방식을 생생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풀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념이 맞는지 따져보기 위해 꼼꼼하게 어떤 데이터들을 비교해야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컨대 1990년대 미국의 범죄율 감소가 통념과 달리 강경한 치안정책보다는 경찰관수 증가와 더 상관관계가 높고, 또 경찰관수 증가보다는 1970년대 낙태허용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찾아낸다. 각각의 사례분석들도 이런 방식으로 방법을 달리하여 되풀이 한다. 여기엔 고등학교별 명문대 진학자수 집계 따위를 통계로 여기는 천박함은 따위는 발발할 곳이었다.

저자들은 통계수치에서 상관관계를 찾는 회귀분석이 학문이라기보다 “하나의 기술(art)”이라 언급하는데, 그들의 의심하고 비교하는 과정이야말로 예술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과정들은 일찍이 J. S. 밀이 정리한 귀납의 방법들이기는 하다. 하지만 명작을 따라 그려보는 것이 좋은 그림을 그리는 감각을 익히는 지름길인 것처럼, 레빗이 이리저리 궁리하는 과정은 숨겨진 사실들을 찾아가는 감각을 익히기에 좋은 연습재료들이다. 다만 그렇게 찾아낸 ‘사실’들을 맹신하면 곤란하다. 레빗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주듯이 지표와 사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악서의 지표는 고루 갖췄지만 이 책이 악서가 아닌 것처럼.

교양교육원 교수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오세목 중등교육과 교감

입학사정관제 도입, 공교육 정상화의 대안인가?

오세목 교감 “입학 사정관제, 다른 수시제도와 차별돼야”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사립대학의 입시 정책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입학사정관제가 공교육 정상화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대학 입학처(처장=고유환)가 지난 19일(목) 우리대학 초하당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에서 중등 고등학교 오세목 교감은 “지나친 사교육 열풍 때문에 수시제도가 왜곡 되고 있다. 심지어 발명왕을 뽑는 전형에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발명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봤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오 교감은 이어 “도입

초기를 맞은 입학사정관제가 수시의 특기가 전형같이 사교육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선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전경원 건국대 입학사정관은 “입시제도가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목적과 연동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작동될 때 학교 현장은 혼란만을 겪게 된다”며 대학과 공교육 현장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통의 수단으로 그는 학생기록부의 내실화를 꼽았다. 그는 “입학사정관은 그 학생의 일차적인 정보를 학생기록부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기록부를

적는 교육 현장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기록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우리 대학 입학처 주관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 날 세미나에는 고려대 과장, 중앙대, 카이스트 등 27개 대학 60명의 입학사정관과 15개 고등학교 22명의 교사들이 참석해 입학사정관제의 올바른 정착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정각원 토요일법회 및 불교대강좌 안내

저명한 불교 학자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명사들이 불법의 진수를 생동감 있게 전합니다.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법과 깨어 있는 생활법문은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활기있게 합니다.

법회안내

- ◇ 일시 : 매주 토요일 (1부) 기도법회 오전 9시 30분 (2부) 불교대강좌 오전 10시 30분
-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 대상 :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불교대강좌안내

- ◆ 불교입문반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동국대학교 강요실
 - 대상 : 불교를 처음 접하는 누구나
- ◆ 불교성전반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동국대학교 강요실
 - 대상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
- ◆ 불교경전반(신규개설)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명상실
 - 대상 : 경전공부를 심도있게 하고 싶은 분

정각원 연락처
02)2260-3016-8
http://jeonggak.dongguk.edu

월	일(토요일)	강좌 주제	강사	비고
3	7(월.11)	생활법회	정각원장	
	14(월.18)	이해경의 이해	송위식	유지대학교 교수
	21(월.25)	한국불교의 세계화	정별주	문과대학 교수(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28(월.2)	건강과 생활습관	신재식	신재식종합병원장
4	4(월.9)	생활법회	인도스님	한조계종 교육위원장
	11(월.16)	불교와 정치	주호영	전나라당 국회의원
	18(월.23)	불교와 사회봉사	상덕스님	목수종합사회복지관장
	25(월.1)	불교와 경영의 지혜	성원대학교 교수	
	2(월.8)	유아	* 부처님 오신 날 (통속법요식)	
5	8(월.15)	생활법회	정각원장	
	15(월.22)	성지순례	예술대학 교수	
	22(월.29)	원교사상의 이해	서윤경	불교대학 명예교수
	30(월.7)	금강경과 공자상	목범사	불교대학 명예교수
6	6(월.14)	생활법회	정각원장	
	13(월.21)	불교와 연극	김부자	탈린트, 영화배우
	20(월.28)	불교의 호수, 명상	레이스스님	수행공동체 제대위나
	27(월.5)	불교 문화의 생활화	박우연	영산대학 교수(광고회사 불교사장)
7	4(월.12)	생활법회	정각원장	
	11(월.19)	스리랑카 불교	정준영	불교대학 강사
	18(월.26)	불교의 체계적 이해	권기홍	불교대학 명예교수
	25(월.4)	불교와 법	정홍상	법과대학 교수(학정)
	7(월.11)	생활법회	정각원장	
	14(월.18)	불교의 우주관	이시우	정사원대 교수
	15(월.25)	근현대사의 불교	이덕진	전원전문대학 교수
	22(월.3)	불교와 예술	이윤택	예술대학 교수(서울예술단 대표감독)
	29(월.10)	불교의 철학적 사유	김철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9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과정명	분야	세부과정명
특별교육	골프	골프터칭지도사, 골프PGA프로양성, 골프코aching(원포인트클럽리)
	예술	문화예술경영, 연출/제작, 공연기획, 설장구(풍물지도사), 설장구전문가, 장구반주과정
	교육·철학	TESOL, 명리학최고지도사
자격증	경제·경영	아트마켓&아트테크, 금융컨설팅전문가, 부동산재테크, 패션 온라인 비즈니스, 헤드헌트전문가, 의료관광전문가, 쇼호스트과정
	문화	APP(에스테틱전문가), 와인컨설팅, 와인어드바이저CEO, 아우로라, 아로마에이전시전문가, 여행테라피 자기치유, 여행테라피스트 양성
대형교협	대형교협	가요전문지도사, 아동미술실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한문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주산활동수학교육사, 아로마테라피스트, 색채심리지도사, 오감만족실용아트지도사, 예쁜글씨POP테라리스트
	민간자격/국가공인	커피전문가, 표현예술치료1단계-6단계, 선oga, 선무도, 악몽심리상담사, 영아미술연기지도사, 웃음치료전문가, 커피전문가, 화해기능사, PIA 탐정·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
불교	Cyber	Cyber 주산활동수학교육사 (총정명의 자격증)
	불교연구반	보살의 길/행복의 길, 한국의 선사사연구
교양	불교전문반	한국불교의 이해, 전법화론, 참선수행, 비종교, 아비달마교 * 5학기 수료 후 총장명의 불교학박사학위 수여
	불교교양	마가스님의 지혜명상, 명상심리치유사, 불교관공인과정, 경전연구(아함경), 불교한문, 참선수행, 불교상담사, 불교무용, 불교의식행용, 불교종교학, 불교미술(불화), 불교다양성
교양	동양철학	명리학, 사주명리학, 사주명리학, 기원명리학, 육임, 육임전문가, 성명학, 인성과개운, 수성학, 생활풍수, 현강기풍수인테리어, 기원한문, 주역(무로강좌-수강생 한할)
	문화·예술	가요강좌, 문인화, 서예, 서예, 전통민화실기, 전통생활자수, 한지화, 고전전통무용, 사진렌즈로 본 세상, 데코파자, POP(손글씨 광고디자인)창업

접수기간 : 2009년 2월 27일(금), 강좌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및 접수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02)2260-3730

접수 및 납부방법 : ① 인터넷 수강신청 후 가상계좌 이체 ② 인터넷 수강신청 후 방문 카드결제 (BC, 국민, 삼성, LG, 신한)

<http://edulife.dongguk.edu>

제18기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수강생모집

- ◆ 강사 : 선재스님(사찰음식연구원, 가정교육과 객원교수)
- ◆ 교육기간 : 3월 17일 ~ 6월 2일(10회) 매주 수요일 10:00 ~ 13:00
- ◆ 대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30명
- ◆ 진행방식 : 이론 + 조리실습 + 시식
- ◆ 교육장소 : 학림관 조리실습실(501-132호)(사범대 1층)
- ◆ 수료료 : 100,000원(재료비)
- ◆ 접수 : 3월 2일(월) ~ 17(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 문의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2260-8853-5, gender@dongguk.edu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가정교육과

2009학년도 1학기 양성평등서포터즈 모집

1. 목적 : - 양성평등서포터즈는 '교육봉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 양성평등서포터즈는 양성평등, 성희롱, 성관련 문제들에 대해 일반학생들보다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모집인원 : 50명 (남·녀 비율 : 50대 50)

3. 모집기간 : 2009년 2월 23일(월) ~ 3월 4일(수)까지

4. 선발방법 : 신청서 제출 후 선별

5. 활동계획(안)

- 활동기간 :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정기모임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8시
- 활동내용 :
 - ◆ 양성평등상담소의 역할과 기능을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
 - ◆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고 이를 지원하며 또래상담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활동

6. 제출방법 : (1) 직접 방문제출 : 계산관A 1층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양성평등상담소 (2) E-mail 제출 : gender@dongguk.edu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달하나천강에

영어강의 이렇게 돌파하자!

학기 초 영어강의를 맡게 되면 책임감을 느낀다. 영어실력의 차이에 따라 미래 경력과 임금의 차이가 상당한 것이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로서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려는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강의가 마무리 시점으로 접어들 때 강사로서 영어실력과 강의 진행방법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자신감 갖고 덤벼라

학생의 참여와 반응은 교원의 역량과 더불어 영어강의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다. 따라서, 영어강의가 활성화되려면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의 능력과 열의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학생이 영어강의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뜯어고쳐 보면 나 또한 학생 시절 강의시간에 영어강의에는 긴장했고 용기를 내야했다. 그러다 보니 수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했다.

한국사회는 '체면'이라는 것을 중시하

는 사회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어를 잘못 구사하면 어찌나' 하며 체면 깎이고 창피당하는 느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외국어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도 우리는 타인과 의사소통하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하물며 외국어가 문법, 발음을 완벽히 할 수 있겠는가. 구대어 되새기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서툴러 실수도 자신 있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자세로 영어강의시간에 임한다면 영어 구사능력이 향상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문을 예습하라

영어강의에 대한 태도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영어로 이야기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이들에게 갑작스런 영어 강의는 막막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럴 때는 본문 내용의 요점을 영어로 짚막하게 3-5줄 정도 작성하고 읽어보라. 영어로 수업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예습 효과도 있는

방법이다.

또한, 교수들이 영어로 질문하는 내용에 응답할 수 있어 시험대비와 함께 영어실력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방법이다. 학업 경쟁이 치열한 요즘 약간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더 노력을 기울이면 영어강의에 효과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한 학생이 영어강의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점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영어강의 수강을 꺼리기도 한다. 물론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해 온 학생이 영어를 위주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구사할 수 있는 이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업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영어와는 별개의 문제다. 영어권 생활 여부에 관계없이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

꾸준한 수강 필요

'영어강의를 수강하면 영어실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강의에 대한 실망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현동
경명대학 경영학과 교수

보리수

좋은 친구(善友)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불교에서는 함께 수행하면서 탁마하는 친구를 각별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친구를 '도반(道伴)' 또는 '선지식(善知識 또는 善友)'이라 부른다. 도반은 '함께 구도의 길을 가는 동무'라는 뜻이고 선지식은 '좋은 벗'이라는 뜻이다. 불교에서 이렇게 친구를 멋진 표현으로 부르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역사가 자못 길다. 잡아함 27권 <선지식경(善知識經)>에 나오는 얘기다. 부처님이 라자가 하의 작은 숲에 있을 때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이런 것을 여주었다.

"저는 수행자가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절반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부처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그는 평소 부처님이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큰 도움이 된다고 칭찬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부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아난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이러했다.

"아난다야,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너에게 좋은 벗이 있고, 그 벗과 함께 있으면 수행의 절반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다. 왜냐하면 좋은 벗에게는 향

상 순수하고 원만하고 깨끗하고 바른 행동이 따라다니지만 나쁜 벗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대들은 언제나 좋은 벗과 사귀기를 좋아해야 한다."

옛 시조에 '까마귀 우짖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고 한 것은 나쁜 친구들과의 유유상종(類類相從)을 경계한 말이다. 사람은 모두 까리까리 만나고 비슷한 친구 지내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근목자흑(近默者黑)'이라 했다. 검은 것을 가까이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다. 노름쟁이를 가까이하면 노름쟁이가 되고 멧장어와 놀면 멧장어가 된다. 왜 멧장의 어머니가 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겠는가.

친구는 우리 인생에서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느냐는 인생의 성패와 직결된다. 그래서 옛사람은 좋은 친구 하나 사귀는 일이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남에게 어떤 친구인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친구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볼 일이다.

동문칼럼

최경주의 힘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밥값이 너무 들어가 미웠어요. 그런데 새벽 2시까지 혼자서 연습공을 죽으라고 치길래 잠 기록했어요"

실내연습장을 운영했던 프로골퍼는 최경주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했다. 필자가 23년간 체육기자로서 현장을 뛰다닐 때 절대로 안될 것 같다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남자의 미국 PGA 우승이었다. 박세리가 개척한 여자 골프만해도 이제는 인기도나 저변에서 한국남자들의 만만함 무대가 됐지만 남자의 미국제패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 불가능을 '탱크' 최경주는 별명처럼 저돌적인 힘과 기개로 7승을 이뤄냈다. 어려서부터 '골프천재'로 두각을 보이기도 않았고 지금처럼 체계적인 골프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의 성공은 타고난 집념과 성실한 연습이 오늘을 있게 했다.

하루 1000개 이상의 연습 공을 매일 소화해내며 PGA 선수 가운데 가장 연습량이 많은 비제이 싱과 누가 먼저 드라이빙 레인지에 나와 연습하느냐를 놓고 경쟁했다는 최경주는 타고난 노력파였다.

3년 전 국내남자골프를 제패하며 '승부사'라는 닉네임을 얻은 강경남이라는 선수가 있다. 이 선수 역시 종교교 시절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아니었다. 이 선수는 대회기간 중 모텔 방에서 퍼팅 매트 깔아 놓고 매일 밤 3시간 이상 골프 공을 굴린 결과 국내에서 가장 퍼팅을 잘하는 선수가 됐고 6승을 기록하고 있다. 목 디스크가 생겨 지금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역시 노력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

집념어린 노력은 한 사람의 운명을 180도 바꿔놓는다. 초중고 시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선수의 성공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준다.

대학시절 누구나 꿈을 꾸고 살아간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한다.

누군가 "노력한다는 것은 자기 속의 천재성을 끌어내는 과정의 연속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재성이 튀어나온다"고 했다. 최경주, 강경남이 이 경우다.

이 세상 누구나 적어도 어느 한 분야에서 서만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천재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끌어내 보여주는 가는 그 사람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그 천재성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 모두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도 모른다.

학생기고

신입생과 동아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신입생 OT, 새터 등 학교가 새로운 식구 맞기로 떠들썩하다. 동아리 또한 예외가 아니다. 벌써부터 학내 게시판에는 포스터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모집글로 도배가 되다시피 한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중앙동아리, 소모임, 연합동아리들 중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대신문 마지막 호의 'OPUS', '현여울'에 대한 기사는 신입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기사다. OPUS는 오케스트라 동아리다.

우리대학은 음대도 없고, 연주를 할 만한 공간도 없고, 누군가의 지원도 없지만 이들은 '오케스트라'라는 공통된 주제로 모였다. 그리고 아무 댓가도 없지만 스스로 사비를 털어 공부하고 악기도 산다. 그리고 강의실크기도 되지 않는 동아리방에서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가 한데 모여 연주를 한다. 이들의 협주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을까.

현여울도 마찬가지다. 현여울은 클래식 기타동아리로 OPUS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발적으로 모여 정기공연

을 꾸준히 해왔다. 주위친구들 중에도 현여울 회원이 있지만 방학에도, 주말에도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선배는 후배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기도, 인생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이들은 학교를 떠난 후에도 다시 동아리방을 찾는다. 대학시절 함께 악기를 사고, 배우고, 연주했던 추억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젊음, 열정이 갖는 기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배가 나서서 후배를 밀어주고 후배는 힘을 등에 업고 마음껏 연주하기에 두 동아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흥배대사 동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무 댓가없이 학교 행사마다 나와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나의 모교를 위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힘들고 고되기도 하지만 학교의 선배, 동기, 후배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다. 이 글이 실린 동대신문사 기자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신입생들이 거침없이 도전해 봤으면 한다. 너무 식상한 말이 돼버렸지만 즐기는 사람은 누구도 당해내지 못한다.



임소라
신문방송학과 3학년

세상돋보기



눈먼자들의 도시

웅산참사 이후, 떠들썩했던 여론도 이제는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언론홍보지침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작 자신들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다. 1달이 지난 지금, 웅산참사사 분향소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함께 쓸쓸히 남겨져 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금주의 식단

Table with 2 columns: Day and Menu. Rows include Wednesday (Shinshinjeon, Bulgdak), Thursday (Gaeranmal, Sojigubul), Friday (Gambijang, Haeul), Saturday (Jangchee, Kimchi), Sunday (Bulggu, Shinchebimbab).

상록원

Table with 2 columns: Day and Menu. Rows include Wednesday (Gambijang, Banchae), Thursday (Tajjim, Carrot), Friday (Sojigubul, Haeul), Saturday (Gwancheon, Jeogori), Sunday (Dobu, Haeul).

아리수

Table with 2 columns: Day and Menu. Rows include Wednesday (Bulggu, Carrot), Thursday (Chinjeolmal), Friday (Bulggu, Haeul), Saturday (Samsal, Haeul), Sunday (Haeul, Banchae).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택!

ROTC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문무를 겸비한 리더를 양성하는 최고의 리더십 과정입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제50기 모집

교육/복무기간

- 후보생기간 : 2년(3, 4학년)
- 복무기간 : 입관 후 2년 4개월

지원자격

- 학군단이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2, 3학년 남자로서 '84. 3. 1 ~ '92. 2. 29 출생자
- 단, 3학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5년제 학과, 복수전공 등에 한함.

선발방법

- 1차선발 : 필기고사 + 대학성적으로 정원의 200% 선발
- 2차선발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실시
- 종합성적순으로 정원의 130% 선발
- 3차선발 : 신원조회 합격자 중 종합성적으로 최종선발 (선발정원 + 예비 20%)
- *종합성적 = 필기고사(300점) + 대학성적(200점) + 체력검정(200점) + 면접평가(3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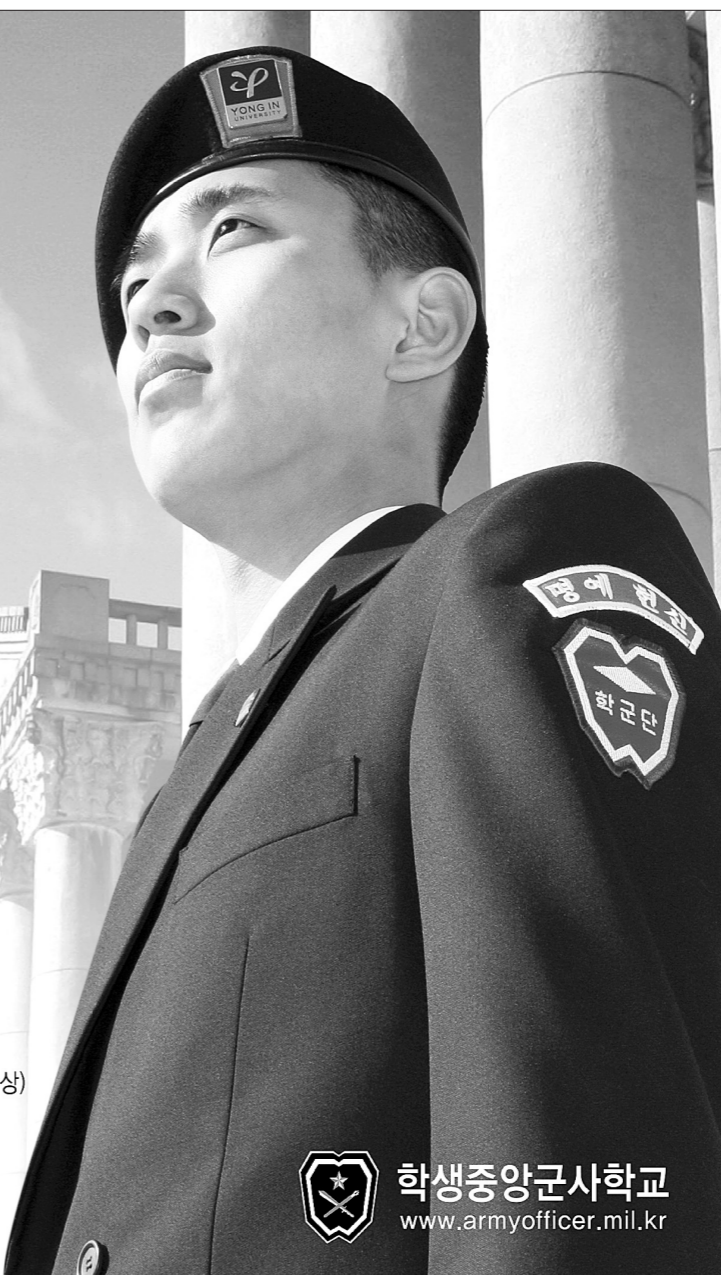
모집일정

- 지원서 접수 : '09. 3. 2 ~ 27(4주)
- 필기고사 : 4. 4(토)
- 1차 합격자 발표 : 4. 24(금)
-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4. 27 ~ 5. 15(3주)
- 2차합격자 발표 : 6. 12(금)
- 신원조회 : 6. 15 ~ 8. 14(9주)
- 최종합격자 발표 : 8. 21(금)

다양한 혜택

- 조직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취업시 프리미엄으로 작용)
- 각계각층의 ROTC 선후배들의 인적 Network 형성
- 전공학문 탐구하는 대학생활과 더불어 장교 양성과정을 동시에 교육
- 재학 기간을 이용해 군사훈련을 받아 복무기간 단축(2년 4개월 : 타장교 기간은 3년 이상)
- 대학별 우수 후보생 장학금, ROTC 중앙회 장학금, 군장학생 지원시 군장학금 등 지원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가능
- 입관 후 장교 급여 / 각종 혜택

문의처 : 대학학군단,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학생중앙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논단

용산폭거, 또는 시장 친화적 정권을 위하여

여섯의 '죽음들' 앞에서 '우리 생각 좀 하자'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뺄맛을 짓는 것 같다. "우리가 고통 받고,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죽어갈 때, 너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라고 울부짖는 유족들 앞에서 몸 둘 바를 모르는 것은 단지 이 정권을 맡은 여당 정치인들만이 아닐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다면서도 지난 정권에서 개발의 욕망을 조정해내지 못하고 결국 대중의 과대 욕망을 부추긴 경제포...

그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

그러나 정말 피지 못한 청춘으로 죽어간 우리의 경찰특공대 청년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용산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를 악물고 생각할 때이다. 또 자기에게 도움을 청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해 망루 위에 올랐다가 더불어 분사한 전철연 활동가나 살려고 올라갔다가 죽어서 내려온 용산 철거민의 죽음이 또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MB 정권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2009년 1월 20일 용산에서 일어났던 사태를 이렇게 인지한다. 즉, 그것은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낼 욕심에 사로잡힌 철...

거민들이 도심지 테러를 사주하는 전철연의 지도를 받아 농성장을 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과 버스에 대한 폭력도 불사하면서 도시의 안전을 불모삼아 떼를 쓰다 일어난 일종의 우발적 사고였다고. 여기에 검찰이 나서서, 농성 돌입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농성장에 인화물질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테러진압을 경찰 특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일종의 테러 진압 작전으로서 별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이런 '테러' 내지 '폭력적 해결'을 사주한 전철연에 있다고, 사태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나섰다. 정권 측에 의해 제시된 이런 공지 사항부터 생각을 출발시켜 보자. 우선 가장 먼저 생각되어야 하는 것은, 정권측이 거의 테러범 내지 폭력인질범으로 몰고 있고 망루에서 사망한 전철연 활동가들이나 용산 철거민들이 과연 현장에서 즉사시켜도 무방할 정도로 긴급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 경찰, 그리고 정권에 가장 호의적인 어떤 언론 보도를 살펴야 할까? 이들이 테러진압부대 작전 대상이 될 만 한 그런 긴급한 액션을 취했다는 정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가의 운영을 맡고 있는 정권이나 아니면 경찰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이 국가의 시민이 아니었는가? 분명한 것은 사망자 여섯 명 가운데 대한민국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非)국민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이들은 아무리 테러범으로 몰고 싶어 하는

이들도 망루에서 분사한 다섯 명의 전철연 활동가나 용산 철거 당사자들이 철거로 인해 발생한 자기들의 '손해를 보상' 받으려는 의도로 '극단적 행동'을 감행했다는 것은 인정할 것이다.

철거민, 정당한 보상 받아야

그런데 여기에서 시각이 갈린다. 망루 농성자들에게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은 이들이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떼를 쓴 것'이라고 몰아붙인다. 이것은 곧 이들이 이미 용산 개발지역 철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충분히 또는 정당하게 보상받았다'고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다. 이들이 내거는 근거는 개발지역 거주자들에게 대한 보상은 전부 법적으로 인정가능한 임주 및 전월세 계약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500만원으로 가게를 얻어 영업하던 호프집 사장님에게는 2,500만원에 3개월 영업손실액에 해당되는 이사비용만 주면 되고, 80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살던 사람은 800만원에 이사비를 조금 더 얹어주면 된다고 법을 해석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온당한 삶을 꾸려온 시민이라면 단지 떼를 써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신나통을 짊어지고 망루 위에 올라가 목숨까지 걸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법적으로 명시된 임대료 말고도 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어오 그 댓가를 지불했던 권리금도 있고, 무엇보다 그 지역에서 향후 짊어지고 3년 이상은 잘 살 수 있다고 내다



홍윤기 문과대 철학과 교수

보고 시작한 미래의 삶도 있었다. 시장에서 엄연히 거래되던 '권리금' 1억을 묵살하고, '자기와 가족의 3년 삶'을 단 석달로 깔아뭉개는 것은 엄연히 재산 절도에 해당된다. 이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노리는 때잡이들이 아니라 '정당하게 축적한 자기 재산'이 법의 이름으로 절도당했다는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 망루 위에 올라갔다.

시장친화도 아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렇게 자기 재산을 손실한 것에 절도당한 가게 사장님들이 아니라 법의 뒤에 숨어서 남의 재산을 짓밟개는 법도(法盜)를 보호하려고 나섰다. 시장에서 형성된 모든 이익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내주겠다고 해서 MB정권은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었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에 대해 법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권리금을 법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법적 규제는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용산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참사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의 재산을 법의 이름으로 강탈하여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는 법도(法盜)들을 감싼 일부 정치경찰의 폭거이고 정권권사의 망발이다. 조그만 비즈니스를 통해 피파 흘려 번 시민의 재산을 정당 보상하라! 그리고 이 법도(法盜)들을 비호한 자들을 처결하라! 그래야 시장-친화적이고, 비즈니스-프렌들리하다고 자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설

2009년 동국 재도약 원년을 만들자

새 학기가 시작했다. 캠퍼스가 활기차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은 때 이른 봄소식을 알리고 있다. 새 봄처럼 올해 우리대학의 역동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이 변화는 올해 우리대학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가능하다. 고양시에 조성을 추진 중인 미디어클러스터와 의생명과학 캠퍼스 착공이 그렇다. 남양주시 윤길산 연습립 개발은 학교 소유 토지의 수익자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산학협력관, 기숙사, 국제관 건립 등 교사 신축도 가변이 넘칠 수 없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한파를 고려해볼 때, 대학본부가 세운 이 계획들의 성공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난 1998년 IMF 당시와 규모, 발생 원인, 파급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하고 구조적인 위기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제위기가 우리대학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3월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동대학 재단 이사장 선출이나, 오는 9월 예정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등도 차분히 바라봐야 할 사안이다. 자칫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경우 안정을 찾아가는 학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때 필수불가결한 외부의 환경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위기가 대학에 미칠 파장을 잘 분석해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대학 내부의 결집된 힘과 역량도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소모적인 갈등을 거듭한다면 치명적인 수확에 없다.

지금 우리대학에 필요한 것은 변화와 장기 비전의 마련이다. 전통에 안주하는 한 미래는 없다. 대학의 장래를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내부 갈등을 막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양한 창구의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는 올 한해 대학본부가 경제위기에 학교가 처한 대내외적 위험요소를 충분히 감안하고 살피 정책을 집행할 바란다. 학내 구성원들도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과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학본부가 지난 1월 내놓은 등 록금 동결 조치는 힘을 모으는 첫 단추였다. 새 봄, 새로운 도약의 씨앗을 동약 곳곳에 뿌리자.



정명근 gmg@naver.com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동훈

메아리

친정엄마와 2박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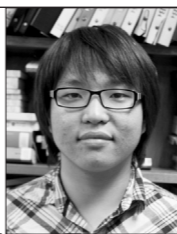
▲개강을 일주일 앞둔 주말 오후였다. 기자는 후문에서 길을 헤매는 세 모녀를 만났다. 이들은 후문 캠퍼스 시도에서 '이해랑 예술극장'을 찾고 있었다. 친정엄마와 2박3일을 보러간다고 했다. 반대편 끝까지 가야된다는 대답에 모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학상 노무 자식이 총무로서 내리면 된다드마는" 어머니의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에 세 모녀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싱긋 웃는다. 못 찾은 것 같은 극장 위치를 알았다는 안도감이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던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세 모녀는 악명 높은 '힐떡 고개'를 만났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머니에게 쉽지 않은 길이였다. 세 모녀는 힘을 합쳤다. 어머니가

앞장을 서더니 두 딸이 뒤에서 몸을 밀었다. 가파른 언덕을 세 모녀는 그렇게 올라갔다. 이해랑 예술극장 앞에서 헤어질 때 그들은 누구보다 밝았다. 이렇게 연극은 극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관객과 관객을 이어주는 통로가 됐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와 이해랑 예술극장은 무대의 배경이 됐다.

▲이해랑 예술극장의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의 흥행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시작한 연극은 본래 어제(1일)까지가 공연 기간이었지만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일(3일)부터 연장공연을 실시한다. 티켓에매 사이트였던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연장공연 티켓 접수에 오픈 24분 만에 주말공연(이번 달 6일, 7일)이 공연이 매

진되는데 등 천 여명에 이르는 관객이 예매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연극은 8일까지 연장공연을 실시한 후 지방순회공연을 한다. 이 연극이 이토록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녀시간의 따뜻한 공감대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이해랑 예술극장의 이 같은 흥행은 예상했던 결과와는 아니다. 사실 처음 이해랑 재단의 기부를 통해 리모델링한 전문공연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성공할까?'라는 의문부호를 드러냈던 사람이 다수였다. 그것은 이해랑 예술극장과 같은, 대학 내 공연장이 이전까지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연물이 따분하거나 식상하다는 평을 듣기 일쑤였다. 그러나 '헬릿'에 이어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흥



정동훈 편집장 gfd1228@dongguk.edu

행을 기록하면서 이해랑 예술극장은 이 같은 우려를 씻고 있다.

▲이해랑 예술극장은 앞으로 '친정엄마와 2박 3일' 같은 상업 연극과 학생 연극을 번갈아 상연한다. 이번 달에는 세 번의 학생연극이 상연된다.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실험무대 역할도 맡는 것이다. 이해랑 예술극장은 이처럼 대학이 당연한 과제인 재정확보와 교육의 융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이 되고 있다.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남긴 흥행하고 따듯했던 힘은 연극학과 재학생들의 또 다른 열정과 힘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해랑 예술극장의 힘이 2009년을 시작하는 동국대학교의 힘찬 발돋움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기업인사관리자 초청특강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200대 기업인사관리자를 모시고 2009년 상반기 기업인사관리자 초청특강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주요내용: 기업비전, 채용 계획 및 전망, 선호 인재상, 자격요건, 취업전략, 채용 경험담, 질의응답
□ 대상인원: 전학내/당당 100명
□ 시간/장소: 오후 4시 00분 ~ 6시 00분/다향관 세미나실
□ 접수기간: 특강 전 일주일
□ 접수방법: 본관 취업지원센터 방문접수(선착순)
□ 문의 의: 취업지원센터(T:2260-3054)

Table with 5 columns: 회번, 일자, 특강명, 강사, 분야. Lists various seminars and speakers.

* 상기 일정과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모의직무적성검사 실시

최근 대기업 취업 시 1차 시험 통과와 결정적 변수인 직무적성검사의 대처능력을 위하여 대기업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재학생 + 휴학생 + 졸업생
□ 신청기간: 2009.3.4(수) ~ 3.30(화)
□ 검사비용: 무료! (학교 전액 부담)
□ 신청방법: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선착순 마감)
□ 문의 의: 취업지원센터(2260-3054)

Table with 6 columns: 구분, 대상, 접수기간, 일시, 장소, 비고. Details the assessment schedule.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후 불참자는 향후 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참가에 제한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전산원 MOS 공인시험센터

제3기 예비 "동국108리더스" 모집 안내

저세대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108project 추진으로 제3기 예비 동국 108리더스(아래의 같이 모집)나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 1. 제3기 예비 동국 108리더스 최종선발자 교육 및 운영 계획
2. 선발 인원: 120명
3. 지원 자격: 대상: 5.6학기 재학생(이수기간 중 휴학 불가), 학점: 총평점평균 3.0이상, 어학능력: TOEIC(600점), CBT(170점), IBT(65점), TEPS(500점), JBT(400점), HSK(100점), OPIC(inovice mid), 영어 트랙 교육과정 B+ 1개 이상인자
4. 제출 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분량은 각 2page 이내로 작성)
5. 신청 기간: 2009. 3.2(월) ~ 3. 6(금) 17:00까지
6. 신청 방법: 제출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 지도교수 날인 받아 u-DRIMS 입력하고 취업지원센터로 첨부서류 직접 제출
7. 선발 방법: 서류 및 면접 심사
8. 서류입력기 발표: 2009. 3. 13(금) 18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예정
9. 선발자 특전: 리더십 교육(기초, 심화, 전문) 전역 교비 지원, 리더십 해외봉사 경비70% 교비 지원(본인 30% 부담), 각종 취업인턴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10. 인증서 특전: 총장명의 "동국 108리더스" 인증서 수여, "참사망인증" 취득가능(조건 충족 시)
11. 문의처: 전화번호: 2260-3052, 센터위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이메일: leadercenter@dongguk.edu, 홈페이지: http://leadercenter.dongguk.edu/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2009-1학기 도서관 이용시간 안내

Table with 5 columns: 건물, 층, 자료실, 요일 구분, 평일, 토요일/일요일. Lists library hours for various buildings.

* 기간: 2009. 3. 2(월) ~ 6. 19(금)
* 법학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은 일요일 휴관입니다.
* 학기 중 일요일에도 중앙도서관을 개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험기간 중 이용시간 안내는 별도로 공지 예정

도서관 나눔장터 행사

- 1. 기간: 2009. 3. 2(월) ~ 3.13(금), (11일간, 도서관 자료실 개방 시간 내)
2. 행사장에 전시된 도서는 모두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음 (1층 1책에 한함)
3. 행사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소액의 책값을 지불할 수도 있음.
4. 행사를 위하여 도서관을 기증할 수도 있고, 다른 도서관과 교환할 수도 있음.
5. 모금된 책값은 교비로 입금되어 전역 도서관에 사용될 예정임.
6. 비치된 도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 종료 후 폐기함.

중앙도서관

신춘문에 대거 당선으로 본 동국 문학의 현주소

동국문학, 찬란한 역사를 딛고 날아오르다

지난해만 13명 등단 ... 기성문인 4명은 문학상 수상



명진관에 붙어있는 신춘문에 당선작 명단

얼마 전 아들의 방 천정에 야광별을 가득 붙이고 별자리의 모형을 만들어 주었다. 아무리 하늘을 올려 봐도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볼 수 없는 도시의 삭막함을 벗어나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우러러 볼 때 느낄 수 있는 감탄과 그 뿌듯함을 알려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전등을 끄고 누워 바라본 천정의 야광별이 그 찬란한 밤하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나 역시 그 별들의 찬란함에 대한 기억을 조금은 되새

기고 위로 받고 싶었던 것이다. 동국대학교의 문학 전통이 지닌 의미도 이렇듯 무수한 성취가 가슴을 울렁이게 했던 그 신화의 기억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동국문학 100년의 전통을 빛냈던 별들이 찬란한 성취를 이루었고, 동국문학의 과거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만해 한용운, 양주동, 서정주, 조지훈, 김달진, 이범선, 조연현으로 이어지는 문학사의 별들이 있었

고, 국문학과에서 문학을 처음 배우던 시절 그 이름들은 뿌듯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으로 내 가슴을 설레게 했다. 80년대 학번인 내게 이런 벅찬 이름들은 또한 넘기 힘든 산이었고 부담이기도 했다.

조정래, 신경림, 황석영 등 뛰어난 선배 문인들뿐만 아니라 가깝게 접할 수 있었던 홍신선, 박제천, 문호치, 문정희, 정재봉, 이상문, 이원규, 김강태, 박찬, 윤제림 등 많은 분들이 모두 후배인 나에게는 지지 않는 문학적 영향을 미친 분들이다.

동국대학교의 문학적 현재와 지나온 역사를 일일이 말한다는 것이 이 짧은 지면에서는 너무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런 개인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름조차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배문인들이 동의를 거쳐 갔고 그분들은 저마다 모두 하나의 궤적을 동국문학의 전통 속에 새겨 놓았다.

그러니 어찌 그 많은 이름을 다 소개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할 것인가.

올해 신춘문예에서 동국문학은 9개 부문에서 8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성과는 결코 우연히 나타난 것은 아니다. 후배를 끔찍이 아끼고 동국문학의 전통을 가슴 깊이 간직한 선배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또 이 당선자들을 가르치신 국문과와 문창과 여러 선생님의 노고와 뛰어난 역량이 그 밑바탕을 이룬 결과일 것이다.

활발한 평론 활동을 하고 계신 황종연, 장영우 교수님, 희곡 창작을 이끈 이만희, 이종대 교수님 등 그리고 창작교실을 처음 만들어서 30년을 이끌어 오신 홍기삼 전 총장님 등의 노고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다.

실제로 이런 지속적인 노력 덕에 작년 한 해에는 신춘문에 이외에도 5명의 신인이 더 문단에 나왔고 팔봉비평상을 수상

한 박해경 동문을 비롯해 4명의 권위있는 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뛰어난 성취를 보인 동문 문인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다 소개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문단에는 공광규, 정병근, 이윤학, 허혜정, 문태준, 채상우, 박판식, 김지혜 시인과 소설가 박성원, 손홍규, 염승숙 동문 등 젊은 세대가 또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문인들의 역량은 문단 내에서 널리 인정된 바 있다.

최근 젊은 문인들의 약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해마다 거행되는 창작교실, 학생들의 자율적 창작모임, 대학원생들의 비평스터디, 창작소모임, 문예대학원생들의 창작모임 등 다양한 학내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 모임은 일주일에 일회 정도의 모임을 지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동국문학의 현 주소와 그 영향력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는 이 글의 청탁이 처음부터 나에게 버거웠던 것도 과거의 찬란한 전통과 현재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도저히 간략히 소개해낼 재주가 없었기 때문인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미처 거론하지 못한 많은 동문 문인들에게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밤하늘의 찬란한 별이 감탄을 자아내는 것은 아마 어둠을 밝히는 고독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른 못벌들과 그 재주를 겨루며 빛나는 별들의 고독, 글쓰기의 고독은 자신만의 세계를 갖기 위한 투쟁이라는 냉정한 진실이 빛나는 비유로 밤하늘의 성좌 속에 새겨져 있다. 저마다 자신의 성좌를 그리기 위해 한껏 빛을 내는 별들처럼, 동국문학인은 여전히 자신과의 싸움에 전력을 다할 뿐이다.

자존심으로 온 힘을 다해 빛을 뿜는 별들의 고독 속에서 문득 동국문학의 찬란한 과거와 역동적인 미래를 동시에 바라본다.



김 춘 식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기 힘든 수련 과정이었다고. 저학년 특히 신입생 때 겪은 합평은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최근에 양은 “공들여서 썼던 작품을 다른 이들이 신랄하게 비판할 때는 힘들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같은 혹독한 수련과정이 없었다면 신춘문예합격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합평, 문학기행 등 국문, 문창과 소모임 활동은 전통과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신춘문에 대거 당선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소모임 활동을 바탕으로 한 당선자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1> 김삼력 감독의 ‘아스라이’ 유지나 교수의 독립 영화 이야기

20대 영화청춘의 진정한 삶이 녹아든 영화



2008년 1월에 개봉한 '아스라이'는 또래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번 개강호 부디는 유지나 교수의 독립영화 이야기가 고정 칼럼으로 총 4회 연재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아스라이는 김삼력 감독의 작품으로 다른 또래들과는 조금은 다른 길을 가는 20대 영화청춘의 상실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편집자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디지털 영상시대, 그래도 영화를 만든다는 것, 특히 변절한 활영기자재도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 독립영화를 만드는 것은 맨 땅 위 헤딩처럼 무모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영화를 만들고픈 열정에 기대 열악한 환경과 고달픔을 돌파해 내는 영화청춘의 일상이 화면 속에 정겹고도 오롯하게 담겨진다.

영화를 보노라면 영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람들의 속물스러움과 그걸 돌파하는 진정성에 은근한 유머까지 느껴진다.

약간의 공의자금으로 지역에서 영화제를 기획하면서 벌어지는 어수선한 풍경, 후배들에게 술 사준다고 뜬금없이 들리는 선배의 자기만족 도취증, 쪽방으로 쫓겨 다니며 어떻게 해서든지 작업장인 작은 공간을 만들어 내는 청년들의 열정, 열악한 현장에서조차도 여배우에게 어설픈 연애작업을 시도하는 활영스텝의 주책스러움까지 담아내는 남루한 솔직함이 흑백화면에 담담하게 펼쳐진다.

심지어 싸구려 주막에서 약간 술이 오른 후배는 선배에게 투정을 부린다. 이렇게 힘든데 영화를 왜 계속 만드느냐? 형은 재능 없으니 그만두라는 직언은 상처를 줄 만한 말이다. 그러나 그런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그래도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는 선배의 자기고백은 허허하고 진솔하다.

이렇듯 진솔한 풍경화예, 대구 지역까지 가세하여 어이없는 순간에서조차도 유머가 터져나온다. 그런 유머효과는 긴 호흡의 영화 리듬을 유연하게 만든다.

결국 영화 만들기에 관한 이 영화는 과장되고 환영에 찬 영화 만들기의 판타지를 깨 주는 효과도 있다. 영화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영화로 돈 벌고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는 일은 환상 혹은 허영에 가득 찬 일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이 영화는 저 멀리 스크린에 갇힌 그들만의 세상 풍경화에 머물지 않는다. 영화든, 예술행위든, 그 무엇이든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며 살아 내려는 보통사람들의 애환이 마치 이웃이나 내 경험인양 정겹게 다가온다. 영화가 삶-일상 자체의 풍경화가 되는 소박한 진정성이 피어나는 순간이다.

-TIP-

고군분투하며 영화를 만들어 온 김삼력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바탕이 된 특실한 에피소드들, 게다가 대구 사투리의 투박한 정겨움이 독립영화의 미덕을 증명해낸다.

신춘문에 당선 비결은 치열한 ‘분과 활동’

합평, 문학기행, 창작교실 등 교수와의 대면 학습

신년벽두 우리대학 출신 8명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특정대학이 신춘문예에 이같이 대거 당선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또한 이번 신춘문에 당선은 시, 소설, 희곡, 평론 등 장르도 불문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원동력은 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가 주축이 된 분과별 소모임에 있었다.

신춘문에 당선자 8명 중 학부출신 2명, 대학원출신 2명 총 4명의 당선자를 낸 문

창과는 각 분과별 소모임 활동, 문학기행 및 창작교실 등 창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분과별 소모임은 시, 소설, 희곡, 독서 분과로 나뉘며 각 각 분과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의 작품에 대하여 합평 활동이 이뤄진다. 이번 신춘문에 당선자들 중 이주영, 정영호, 최문애, 변기석은 분과 출신이다. 최문애 양은 “희곡 분과를 통해 연극무대에서 본 기억을 유쾌하

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한다”며 “상연해 보지 않고 글로만 읽는 희곡은 반쪽 자리 희곡에 지나지 않는다”며 분과 활동이 신춘문에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줬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영양은 “분과생활을 통해 연극 연출을 해본 것이 희곡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춘문에 합격자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이 합평이다.

합평은 자신의 작품을 여러 사람이 읽고 품평을 하는 것이다. 소모임을 통해 일주일에 한번 씩 계속되는 합평은 건디